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

문순덕 · 김석윤 · 조현성



발 간 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에 사람이 더해지면 문화가 됩니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슬로건은 제주의 자연과 사람과 문화의 가치를 모두 아우른 말입니다. 이 슬로건을 문화정책에 반영하여 2016년에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 도민들은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향유 활동에 참여해 오면서 문화공간과 문화 매개자는 물론 다양한 정보 공유 플랫폼 등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제주 도민, 예술가, 제주 이주민, 국내외 예술가 등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은 전문가회의, 도민 토론회, 문화정책 워킹그룹 등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4개의 전략과 1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민선 7기는 물론 향후 5년간 추진 가능한 전략과제로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제주 문화정체성 확립, 문화자원 융합 제주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제주형 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문화가 있는 삶, 제주형 모델 개발’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핵심과제로는 ‘제주 자원 조사 및 자료 구축, 문화다양성 확산, 미래유산 제도 보완,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예술생태계 조성, 지역 중심의 문화공간 거점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태계 구축’ 등을 선정하여 제주 문화의 가치 확산과 도민들의 문화 활동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주도 자연자원의 가치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을 포함한 인문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257조의3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와 국비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핵심과제들이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완성하는 데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제주연구원 원장 김 동 전

목 차 CONTENTS

I. 연구 개요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II.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분석	5
1. 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 배경 및 방향	5
2. 문화예술의 섬 조성 비전 및 전략	7
3. 중점과제 주요 내용	9
4. 분석 결과	17
III.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19
1. 국정 비전과 문화정책	19
2.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 비전과 계획	28
3.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방향과 정부 문화정책의 조응	53
IV.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 현황 및 추진과제	58
1. 제주 문화정책 환경	58
2. 민선 6기 문화정책 추진 결과	63
3. 민선 7기 문화정책 추진 현황	74
4.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79

V.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방안	91
1. 추진 방향	91
2. 전략과제 선정 방법	92
3. 전략과제 주요 내용	95
참고문헌	112
ABSTRACT	113

표 목차

<표 2-1>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	9
<표 3-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68번, 69번, 70번, 72번, 73번)	22
<표 3-2> 문화비전 2030 추진과제	38
<표 3-3> 법률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현 정부 출범 이후)	43
<표 3-4>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19년 목표)	14
<표 3-5>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37개)	34
<표 3-6>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 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문예기금	49
<표 3-7>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50
<표 3-8> 2020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주계정	53
<표 3-9> 2020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제주계정	54

<표 3-10> 2020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제주계정	54
<표 3-11> 2020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주관광 지원): 제주계정	55
<표 4-1> 2018년 주요 지표(목표): 문화 분야	26
<표 4-2> 민선 6기 문화정책 분야 추진 실적	36
<표 4-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보 추이	17
<표 4-4> 민선 6기 문화정책 추진 내용	37
<표 4-5> 문화기반시설 현황(2019. 9. 30. 기준)	47
<표 4-6> 문화예술단체 현황	47
<표 5-1> 전략과제 선정 절차 및 주요 내용	39
<표 5-2>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관련 핵심과제	4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4
<그림 2-1>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향	6
<그림 2-2>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비전 및 전략	7
<그림 2-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섬 조성 행정 협치체계	11
<그림 2-4> (가칭)제주문화재단 조직도	11
<그림 2-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섬 조성 거버넌스 체계도	21
<그림 3-1>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국정 목표	20
<그림 3-2>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문화부분 7개 과제	12
<그림 3-3>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과제(67번)	22
<그림 3-4>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 혁신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72
<그림 3-5> 문화비전 2030의 비전과 방향	92
<그림 3-6> 새 예술정책의 비전과 전략과제	63

<그림 3-7> 새 예술정책의 실행과제와 대표사업	73
<그림 3-8>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목표	04
<그림 3-9>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24
<그림 3-10>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비전과 추진전략	54
<그림 3-11>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비전과 추진전략	64
<그림 3-12>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비전과 과제	84
<그림 4-1>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	06
<그림 4-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보 추이	17
<그림 5-1> 전략과제 도출 모형	39

1. 연 구 개 요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사람이 있는 제주 문화를 유지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며, 예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 이에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과 제주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문화 정책을 수립하여 제주 도민이 항상 문화예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수립해야 함.
- 이 연구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2016)에 제시된 중점과제(4개)와 핵심과제(20개)를 점검하여 민선 6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민선 7기 ‘문화 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함.
- 또한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주 도민, 예술가, 제주 이주민, 국내외 예술가 등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안함.

1-2.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 기준
 - 목표연도 : 2025년 (1차 실행연도: 2020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1-3. 연구방법

-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관련 현황 분석
- 제주 도민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 수렴

2.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검토 결과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의 중점과제는 제도정비 및 행정기반 구축, 환경 기반 조성, 예술가 창작지원, 문화산업 발전 방안 등에 역점을 두었음.
 - 이 보고서에 제시된 20개의 핵심과제 중에 추진 완료(일부 추진), 추진 중, 미추진 등으로 구분함.
- 핵심과제 추진기간은 과제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2017년~2026년에 해당되므로 2019년 기준 미추진 과제는 이후 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 가능함.
-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1-1)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있음(제주특별법 제257조의3).
 - 6단계 제도개선(특별법 개정안)안은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하여 2016년 하반기에 정부에 제출하였고, 2017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문화행정 전문가 제도 도입(1-2)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행됨.
 -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제주특별자치도문예진흥원 기관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하였음.
- 문화유산 가치 확산 거점지원조직(1-6)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조직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지역문화활성화팀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문화유산 활용, 해녀문화 보존·진흥, 지역문화재생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제도 실시(1-7)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심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 주최로 ‘문화영향평가 운영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됨(2018. 10. 11.).
-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2-2)와 관련해서는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마련한 사례가 있음.
 - 구)산양초등학교를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2019년 완공 예정), 제주시 삼도2동 예술인 입주 점포 사업이 추진됨(2015~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문화예술을 입히는 사업(2-5)은 일부 추진되고 있음.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매년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있음.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사업(3-1)은 추진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2014), 2017년에 ‘문화예술인 창작융자지원제도’를 도입하였음.

○예술 창작 인력 양성 기관 운영(3-2)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함.

- 제주지역에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워지자 차선택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음악과(함덕고등학교)와 미술과(애월고등학교)를 신설하여(2017), 2018년에 신입생을 받아들임.

○글로벌 문화예술인 유입 비자제도 개선(3-3)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 없게 됨.

○세계성을 확보한 문화예술축제 육성(4-2)은 일부 추진됨. 즉 제주국제관악제와 탐라문화제는 매년 예산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제주대표 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음.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 브랜드화 및 문화관광 상품 개발(4-4) 과제는 일부 추진됨.

- 제주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 ‘제주인놀다’가 구축되었고, 예술공간 이아에서는 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됨.

○핵심과제 중에 아직 추진되지 못한 사업은 ‘1-3, 1-4, 1-5, 1-6, 1-7, 2-1, 2-4, 4-3’ 등이 있는데, 사업별 추진 기간이 2017년~2026년에 걸쳐 있으므로 미완료 상태가 있는 것임.

<표 1>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

중점과제	핵심과제	이행 정도
1.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관련 제도 정비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1-1.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반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1-2. 문화행정 전문가 도입 지원체계 마련	일부 추진
	1-3. 문화예술정책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추진

중점과제	핵심과제	이행 정도
	1-4. 문화예술정책의 컨트롤타워 운영조직 정비	미추진
	1-5.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단 신설 및 운영	미추진
	1-6. 제주 문화자원 해석과 가치 확산의 거점 지원체계 구축	미추진
	1-7. 문화영향평가 제도 실시	미추진
2.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환경 기반 조성	2-1. 문화예술 헤리티지 제주 운동 전개	미추진
	2-2.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일부 추진
	2-3. 도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섬 만들기	일부 추진
	2-4.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적 디자인 사업 추진	미추진
	2-5. 문화예술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 확대	추진 중
3. 문화예술 창작 인력 및 매개 인력 양성	3-1. 문화예술인 복지 증대 및 지원체계 구축	추진 중
	3-2. 예술 창작 인력 양성 기관 운영 활성화	추진 중
	3-3. 글로벌 문화예술인 유입 비자제도 개선	종료 (미추진)
	3-4. 글로벌 창작 인력 및 매개 인력 양성	일부 추진
4.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관광산업과 연계 지원	4-1. 문화예술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일부 추진
	4-2. 세계성을 확보한 대표 문화예술축제 육성	일부 추진
	4-3. 제주의 가치와 창의성을 결합한 복합형 생태 예술농장 운영	미추진
	4-4.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 브랜드화 및 문화관광 상품 개발	일부 추진

3.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방향과 정부 문화정책의 조응

3-1. 지역 문화분권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정책 환경은 지역 문화분권 추진에 있음.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 지방에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는 4,036억원 정도임.

○2020년 균특회계(제주계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약 13,288백만원임.

<표 2> 2020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제주계정

(단위: 백만원, %)

	2018 결산	2019예산		2020 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 a	요구	조정 b	b-a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계	17,894	27,857	27,857	13,288	13,288	▲14,569	▲52.3
1253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1,000	1,600	1,600	-	-	▲1,600	순감
1553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893	6,379	6,379	1,280	1,280	▲5,099	▲79.9
1554 지역문화컨설팅	21	20	20	30	30	10	50.0
4154 기초관광자원 개발	10,000	19,018	19,018	2,287	2,287	▲16,731	▲88.0
관광자원개발 4154-300	8,800	16,611	16,611	-	-	▲16,611	순감
제주관광진흥지원 4154-302	1,200	2,407	2,407	2,287	2,287	▲120	▲5.0
5153 체육진흥시설 지원	1,980	840	840	9,691	9,691	8,821	1,053.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0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3권: 일반회계 7100프로그램, 지특회계·균특회계』, 571~572쪽.

3-2. 문화다양성 정책

○(문화)다양성은 「문화비전 2030」에서 3대 가치(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가운데 하나이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음.

○「문화비전 2030」에서 다양성은 공동체의 다양성으로 표현되지만, 다양성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표현에서 비롯된다면 제주 도민 개개인은 물론 제주도 내 다양한 집단과 제주도 전체를 나타내는 정체성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

- 제주도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에 따른 제주의 정체성은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다양성 측면에서 더욱 보존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

3-3. 제주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생태계

- 정부 정책 중에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공정성에 있음. 공정성 확보는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 (전문)인력의 부족과 이주 예술가, 이주 인구의 증가 현실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콘텐츠산업-관광은 하나의 체계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를 구성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3-4. 사람이 있는 제주 문화

-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제되지 않는 ‘개인’의 자율적 문화 또는 문화적 자율성을 의미함.
- 따라서 제주 도민이면 누구나(연령, 성,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서나(제주의 도심이나 농어촌이나) 문화로 자신을 표현하고(문화정체성), 문화로 즐거운 삶이 되어야 함.

4. 민선 6기 문화정책 추진 결과

- 민선 6기 제주 도정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문화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으며,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음.
- 6대 전략과제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주 문화브랜드 세계화,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문화예술의 활성화 기반 조성, 제주의 독특한 문화 발굴 육성, 종교문화 가치 발굴 및 활용 등이며 연도별로 세부과제가 추진됨.
 - 6대 전략과제는 연도별로 일부 변동이 있으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4년 간 같다고 볼 수 있음.

<표 3> 민선 6기 문화정책 분야 추진 실적

핵심전략	전략과제	주요 사업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과제 반영
문화예술의 섬 조성	1.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순수 문화예술인 대상 보조율 폐지 ·다양한 계층 대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반영
	2. 제주 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관악제와 합창제 등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 개최 ·UCLG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교류 확대	반영
	3.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영화산업 육성 ·윈도십 활성화	반영
	4.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	·술동산 및 삼성혈 문화의 거리 조성 완료 ·제주도립 김창렬미술관 개관	반영
	5. 제주의 독특한 문화 발굴 육성	·제주어 보전 및 확산을 위한 채록사업 추진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반영
	6. 종교문화 가치 발굴 및 활용	·전통 종교문화 원형 보존 및 인프라 구축 ·종교 성지순례길 조성	반영
	7.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협치 시스템 구축	·문화예산 확대 ·문화협치 시스템 구축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반영

5.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5-1.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전문가 회의 9회, 전문가 토론회 2회 개최 결과 수렴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제주 문화예술의 섬’ 추진 관련 실효성 부족
- ② 도민 친화적인 사업 확대 추진

- ③ 예술생태계의 지속적인 변화 점검 필요
- ④ 제주 문화예술 자원의 아카이빙화 확대
- ⑤ 외국인을 위한 문화예술 정보 서비스 확대
- ⑥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컨트롤타워 운영
- ⑦ 공공기관의 소장자료 정보 공유의 제도화
- ⑧ 문화 매개자의 전문성 강화
- ⑨ 제주대표 브랜드는 기존 사업의 지원 확대로 전환
- ⑩ 제주 인문학의 대중화 교육 지원 확대
- ⑪ 문화콘텐츠산업 참여 인구의 저변 확대 기회 제공
- ⑫ 예술가 복지 지원제도 개선
- ⑬ 문화공간 운영 방법 개선
- ⑭ 공공 및 민간 공연장 이용 확대 방안 마련

5-2. 도민 원탁회의 결과

○제주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제주 도민 50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예술가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및 창작공간 지원
- ②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③ 문화 매개자 양성 및 활동 공간 지원
- ④ 문화공간 이용의 다변화 필요
- 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필요
- ⑥ 지역 예술가 대상 적극적인 홍보 지원
- ⑦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6.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방안

6-1. 추진 방향

6-1-1. 문화다양성 환경 조성

- 제주사회는 2000년대 들어와서 외부의 투자자본이 증가하였고,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문화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의 섬을 활성화하려면 제주 고유문화와 외래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 결국 제주라는 공동체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자신들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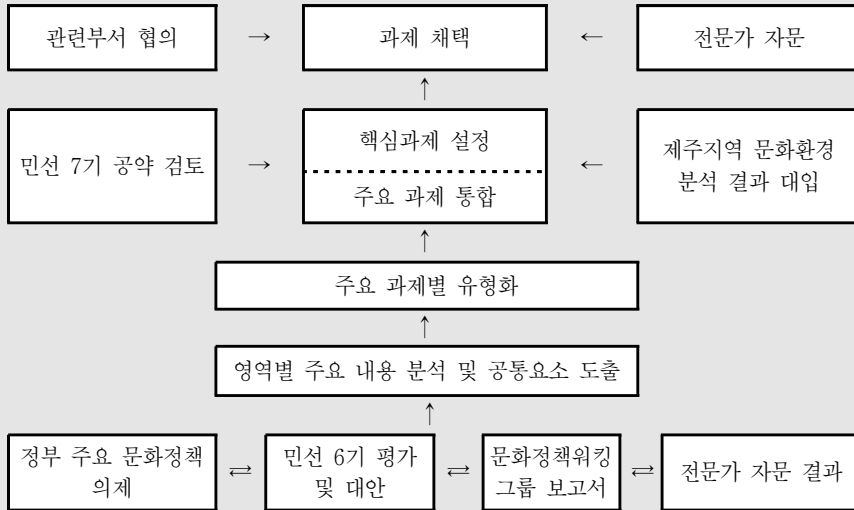
6-1-2.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조성

- 사람들은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 풍요로움에 두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음. 이에 개인이나 사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사람 중심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음.
- 문화도시는 도민들이 고유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창작자와 향유자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6-2. 전략과제 선정 방법

-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와 핵심과제는 전문가와 도민 대상 의견 수렴,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2016)의 핵심과제,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 등을 참조하여 선정함.
- 제주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는 정책은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과제 선정에 역점을 두었음.

<그림 1> 전략과제 도출 모형



○전략과제 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 전략과제 선정 절차 및 주요 내용

민선 6기 평가 후 대안	정부의 문화비전2030 주요 의제	전문가 자문	전략과제(안)
제주 문화정체성 확립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제주어 웹사이트 개발 ·제주 민속 아카이브 구축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제주 문화 정체성 확립
제주 특화형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문화예술 종합 플랫폼 ·제주형 콘텐츠 유통 통합 플랫폼 구축	문화자원 융합 제주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제주 문화예술생태계 강화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 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현장성을 겸비한 인력 양성 ·예술인 복지 지원제도의 현실화	제주형 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	·지역 문화분권 실현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문화가 있는 삶, 제주형 모델 개발

○민선 7기 문화예술의 섬 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전략과제 4개 분야에 핵심
과제 13개를 선정함.

<표 5>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관련 핵심과제

전략	핵심과제	추진 기간
1.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제주 문화정체성 확립	1-1. 바다에서 한라산까지, 제주 자원 활용 기반 구축	2020~2025
	1-2. 인문학 진흥 지원 제도 강화	2020~2025
	1-3. 제주 문화다양성의 포용과 확산	2020~2025
	1-4. 미래유산 제도 정비 및 활용	2020~2022
2. 문화자원 융합 제주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2-1. 문화콘텐츠 융합 데이터 뱅크 구축	2020~2023
	2-2.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2020~2023
	2-3.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 육성	2020~2023
3. 제주형 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3-1. 예술창작 환경 제도 개선	2020~2022
	3-2. 튼튼한 예술생태계 조성	2020~2022
	3-3. 문화거버넌스 구축	2020~2022
4. 문화가 있는 삶, 제주형 모델 개발	4-1. 생활SOC 확대 및 유희공간의 문화거점화	2020~2023
	4-2. 문화공간 벨트 구축	2020~2022
	4-3.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태계 구축	2020~2022

I. 연 구 개 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사회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계 역시 순수예술과 응용예술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고 있음.
 - 4차 산업을 문화공간 및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접목하여 도민들의 문화 향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2013), 개인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2014), 지역이나 계층은 물론 연령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부와 지방 간 문화 격차 해소에 필요한 지역 문화분권 추진 등 지역문화 및 지역학 진흥을 위한 지역중심형 문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실태를 조사하여 전국의 문화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분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국민들이 휴식이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가생활 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창작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제도 정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정부의 문화정책 기초를 반영하여, 민선 7기 제주도정의 문화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민선 6기 출범 당시(2014)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문화예술정책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존의 정책을 아우르며, 제주에 예술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주력했음.

- 따라서 사람이 있는 제주 문화를 유지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며, 튼튼한 예술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 민선 7기 문화예술체육 분야 정책 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에 두고 10개 공약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주의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사업, 제주 역사문화 연구 편찬사업, 거점형 콘텐츠 기업 및 창작지원센터 지원, e-스포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기회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거점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육성, 장애인 체육지원 활성화.
- 이에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과 제주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제주 도민이 항상 문화예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수립해야 함.
- 이 연구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2016)에 제시된 중점과제(4개)와 핵심과제(20개)를 점검하여 민선 6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민선 7기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또한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주 도민, 예술가, 제주 이주민, 국내외 예술가 등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 기준
 - 목표연도 : 2025년 (1차 실행연도: 2020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내용적 범위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2016) 분석
 -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과 과제
 - 민선 6기 문화예술정책 추진 결과
 - 민선 7기 문화예술정책 추진 현황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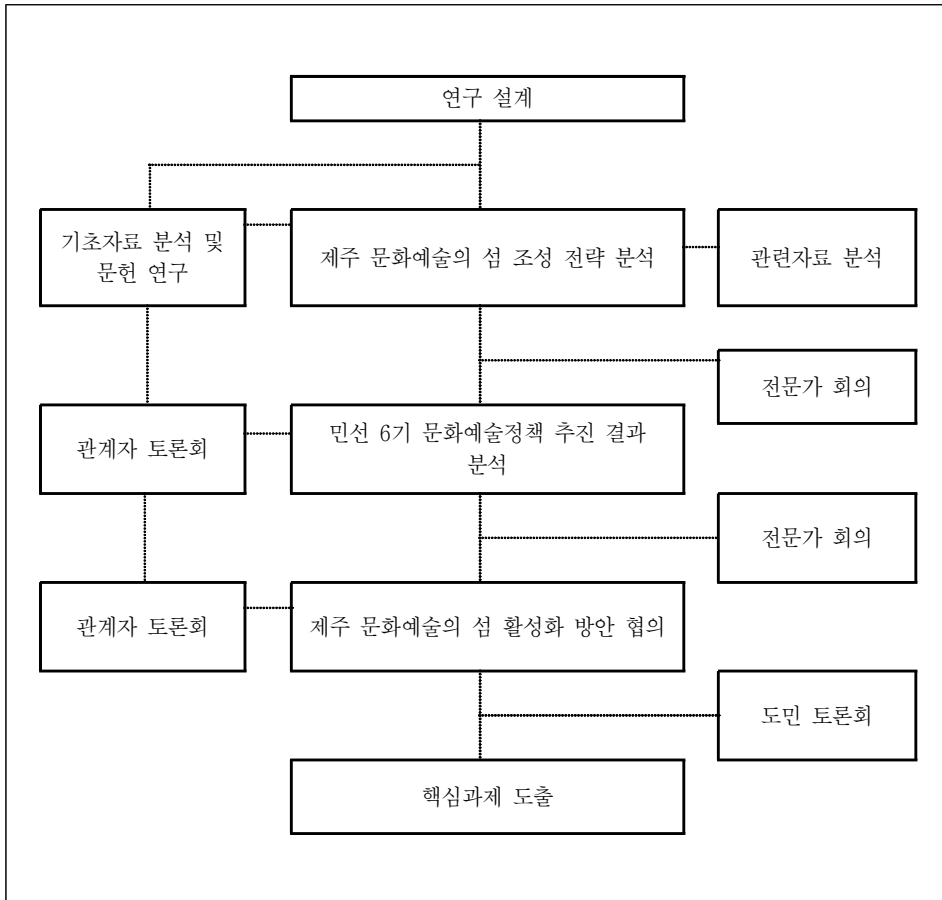
2-2. 연구방법

-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관련 현황 분석
- 제주 도민 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 수렴

2-3. 연구 수행 절차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2016) 분석
-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현황 분석
-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방안 및 핵심과제 도출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II.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분석

- 이 장에서는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¹⁾에 기초하여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배경,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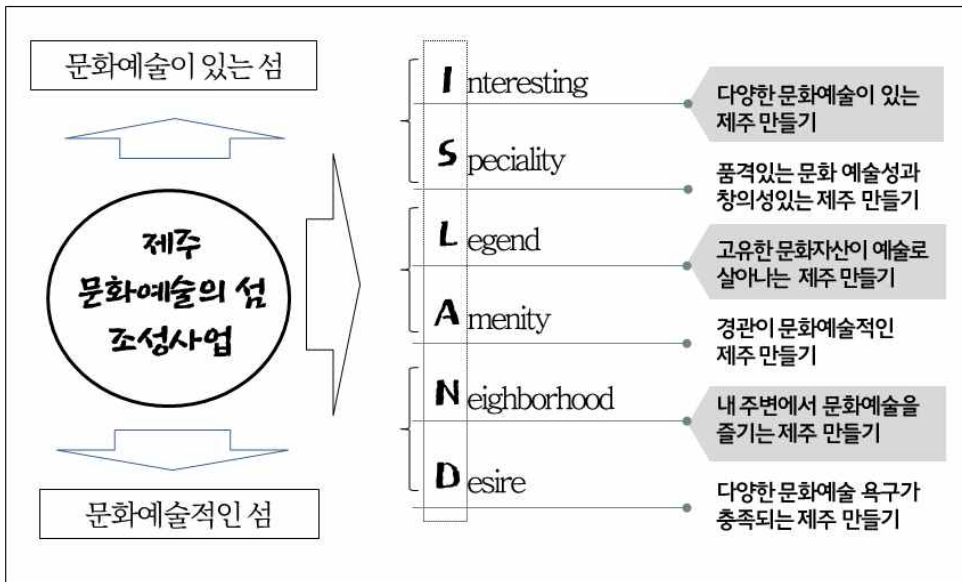
1. 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 배경 및 방향

-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의 섬 조성’ 필요성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발점에서 대두됨(2014).
- 원희룡 도정의 선거공약으로 등장한 ‘문화예술의 섬 조성’ 프로젝트는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 문화의 계승발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 확대,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공연산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민선 6기(2014~2018)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지향하는 데 두었으며, 관련 분야 정책이 추진되었음.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발전 정책 프로젝트와 정부의 문화융성정책 연계, 제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제주의 창조적 발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 상승, 문화예술의 일상화와 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한 시대적 요청,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와 단체의 요구 부응 등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 도민과 전문가들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 필요성, 조성 방향, 조성 범위, 조성의 필요조건 등을 제안했음.

1) 2장은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문순덕 외, 제주발전연구원, 2016)에 기초하여 작성함.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결과 ‘인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다 분야간 융합적 가치,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지니게 될 것이라 보았음.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향은 문화예술이 있는 섬, 문화예술적인 섬에 두고, 추진 목표는 ISLAND로 정하였음.

<그림 2-1>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방향



2. 문화예술의 섬 조성 비전 및 전략

2-1. 비전과 목표

- ‘제주의 가치 창조, 문화예술의 섬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술(문화), 경관(자연), 삶(사람)’ 등을 목표로 설정함.
- 이 비전은 도민에게는 문화예술이 일상인 제주, 예술가에게는 문화예술로 생활하는 제주, 관광객에게는 문화예술적 재미가 있는 제주가 되도록 하는 것임.
- 추진전략은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제주 자산의 문화예술화, 도민의 문화예술적인 삶 구현 등으로 정함.
- 중점과제로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관련 제도 정비 및 행정지원 체계 구축,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환경 기반 조성, 문화예술 창작인력 및 매개인력 양성,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 지원 등 4개 영역을 제시함.

<그림 2-2>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비전 및 전략



2-2. 전략 추진 기준 및 원칙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추진 기준을 선정함.

- 기준 1.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 다지기
- 기준 2. 상징적 프로젝트의 추진
- 기준 3. 외부자원의 유입과 내부의 잠재자원 개발
- 기준 4. 미래 관점에서 지역별-권역별 특화 및 균형 고려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 추진 원칙을 정함.

- 원칙 1. 예술가의 창의성 및 자율성 제고
- 원칙 2. 격차의 해소와 문화예술의 융합
- 원칙 3. 협치와 협력

■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추진체계 구축
- 기획력 있는 문화예술 주체(계획실행 그룹)의 발굴과 인력 양성
- 중장기적 계획 설계와 모니터링

3. 중점과제 주요 내용

3-1. 중점과제 개요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방향은 문화의 다양성 지향 및 예술가의 자율성 존중, 도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문화예술정책 수립 및 추진,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높이는 협치 및 글로컬 전략 구축 등으로 정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함.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4개 중점과제와 20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핵심과제 이행 정도는 2019년 9월까지 추진 실적을 기준삼아 추진 중, 일부 추진, 미추진 등으로 표시함.

<표 2-1>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

중점과제	핵심과제	이행 정도
1.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관련 제도 정비 및 행정지원 체계 구축	1-1.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반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1-2. 문화행정 전문가 도입 지원체계 마련	일부 추진
	1-3. 문화예술정책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미추진
	1-4. 문화예술정책의 컨트롤타워 운영조직 정비	미추진
	1-5.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단 신설 및 운영	미추진
	1-6. 제주 문화자원 해석과 가치 확산의 거점 지원체계 구축	미추진
	1-7. 문화영향평가 제도 실시	미추진
2.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환경 기반 조성	2-1. 문화예술 헤리티지 제주 운동 전개	미추진
	2-2.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일부 추진
	2-3. 도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섬 만들기	일부 추진
	2-4.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적 디자인 사업 추진	미추진
	2-5. 문화예술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 확대	추진 중
3. 문화예술 창작 인력 및 매개 인력 양성	3-1. 문화예술인 복지 증대 및 지원체계 구축	추진 중
	3-2. 예술 창작 인력 양성 기관 운영 활성화	추진 중
	3-3. 글로벌 문화예술인 유입 비자제도 개선	종료 (미추진)
	3-4. 글로벌 창작 인력 및 매개 인력 양성	일부 추진
4.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관광산업과 연계 지원	4-1. 문화예술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일부 추진
	4-2. 세계성을 확보한 대표 문화예술축제 육성	일부 추진
	4-3. 제주의 가치와 창의성을 결합한 복합형 생태예술농장 운영	미추진
	4-4.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 브랜드화 및 문화관광 상품 개발	일부 추진

3-2. 중점과제 주요 내용

3-2-1. 중점과제 1.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관련 제도 정비 및 행정지원 체계 구축

①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반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계획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법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35조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규정과 유사하게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현재 전체 예산 중 3%대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점차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문화산업, 기초예술 등 항목별 예산의 적정 규모를 확보함.

② 문화행정 전문가 도입 지원체계 마련

■ 문화정책관련 행정 조직에 문화예술관련 분야 직렬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제주를 문화예술이 배어 있는 섬, 문화예술적인 섬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문화시설 운영에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자율성과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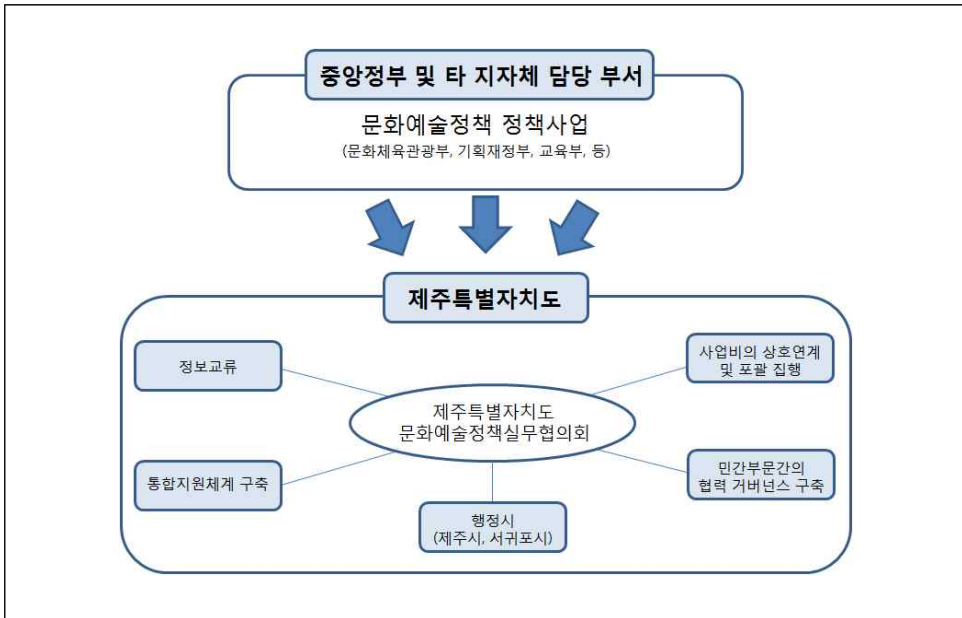
- 공공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최고 책임자를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여 자율성과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지원함.

③ 문화예술정책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서와 유관 부서들 간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그림 2-3> 참조).

■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문화예술 네트워크 등과 관련하여 실국의 과장과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국장이 참여하는 <(가칭) 문화예술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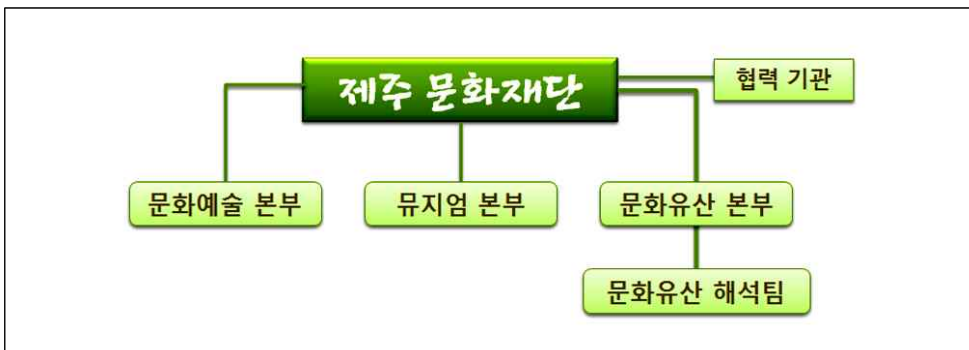
<그림 2-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섬 조성 행정 협치체계



④ 문화예술정책의 컨트롤타워 운영 조직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문화 예술정책 수립과 실행, 평가, 상호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운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제주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조직을 재편하고, 필요할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를 개정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함.

<그림 2-4> (가칭)제주문화재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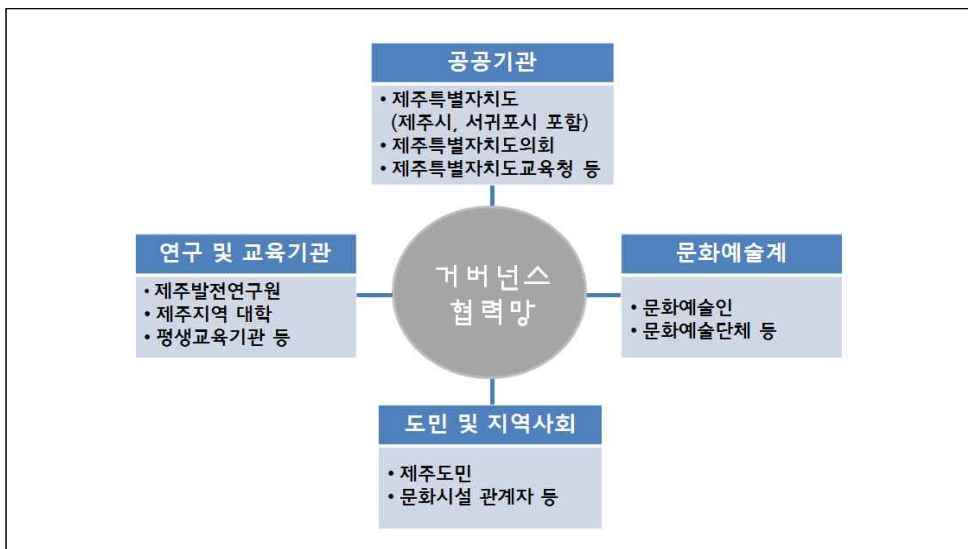


⑤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단 신설 및 운영

■ ‘<(가칭)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 및 모니터링,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정책 기획 및 집행, 정책 사업 발굴, 민간 문화예술 조직(단체, 기관) 간의 협력사업,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연계 등 문화예술의 섬 조성 관련 업무를 총괄함.

- ‘<(가칭)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단>’의 위상은 국장급 지위(행정직 3급 상당)를 부여하여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대한 정책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그림 2-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섬 조성 거버넌스 체계도



⑥ 제주 문화자원 해석과 가치 확산의 거점 지원체계 구축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정책은 제주 문화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확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가칭)제주문화재단’의 ‘문화유산본부’ 하에 <제주 문화유산해석팀>을 신설함.

■ <제주문화유산해석팀>에서는 국내외의 지역학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직을 구성하여 흩어져 있는 제주 자원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현대의 삶의 관점에서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 다각적 방안을 개발하는 업무를 추진함.

⑦ 문화영향평가 제도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2014~2015),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계획에 적용하도록 함.
-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적 효과를 지수화하게 되면,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의 가치 공유 정도를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음.

3-2-2. 중점과제 2.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환경 기반 조성

① 문화예술 헤리티지 제주 운동 전개

- ‘(가칭)제주문화재단’ 내에 있는 <제주문화유산해석팀>을 주축으로 하여 재발견할 수 있는 제주의 문화예술 자산을 찾아 도민이 소중히 여기고, 미래의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식 고양 운동을 전개함.
- <(가칭)제주문화유산해석팀>의 주도로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 인터넷, 앱, 포스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도민이 공감하고 체화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모색함.

②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관련 문제로 창작공간의 부족, 소규모 극장의 부족, 예술시장의 비활성화,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 부족, 예술가의 기초생계 해소 방안 미흡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아트페어 육성 및 집중화 사업 추진, 유목적 문화예술축제 <(가칭)예술오일장>을 설립·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작공간 마련, 민간 주도의 창작·전시·공연·유통의 순환구조에 필요한 제도를 지원함.

③ 도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섬 만들기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학교와 직장, 일상과 여가 시간 등 도민의 생활 예술이 가능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특히 자생적인 문화예술 동호회 등의 지원을 강화함.

- 공공 문화예술 기관의 지역 맞춤형,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활동하고 있는 마을 합창단·합주단 등 마을단위 동아리, 동호회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 펼치며, 성공 사례를 홍보하여 주변 마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함.

④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적 디자인 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 디자인 부분에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적이며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글로벌 관광객을 위해 언어 사용과 표현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친화적인 내용과 디자인을 도입해야 함.
-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 시설물, 민간의 간판 설치 등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강화함.
 - 주요한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

⑤ 문화예술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 확대

- 전 세계의 주요 도시는 문화와 예술을 토대로 도시재생을 시도하고 있음. 홍콩의 자키클럽 창의예술센터(JCCAC)와 같이 오래된 공장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 등이 조성되면서 낡은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도 이미 시작된 원도심 재생사업과 공공디자인 및 건축 등에 문화 예술을 반영하도록 장려하며, 미적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함.

3-2-3. 중점과제 3. 문화예술 창작 인력 및 매개 인력 양성

① 문화예술인 복지 증대 및 지원체계 구축

-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창작안전망 구축이 중요하게 대두됨. 최소한의 창작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문화예술인이 기초 생계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기타 복지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제주문화예술재단 차원에서 예술인 복지 사업을 개발함. 사립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협업, 기업과 협업, 관광 성수기에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프로젝트 개발 등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함.
 - 창작 교육자, 퍼실리테이터, 문화예술 강사, 기획자, 코디네이터 등 창작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직업군과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함.

② 예술 창작 인력 양성 기관 운영 활성화

- 유소년, 초·중·고 재학생 대상 예술교육, 예술특성화고등학교, 예술대학 등 기존의 인프라를 점검하여 생애주기별 창작 인력 양성 기관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관련기관은 일반적인 평생교육 개념의 문화예술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생 및 기성 예술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도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③ 글로벌 문화예술인 유입 비자제도 개선

- 세계의 문화예술인이 찾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려면, 국외 예술가들이 제주 지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제주지역에서 열리는 행사,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려는 외국의 예술가들이 증빙서류와 함께 국내 또는 도내의 문화예술기관장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 ‘예술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예술(D-1)비자’ 발급을 위한 검증 과정을 완화하여 국외의 문화 예술인들이 6개월~1년 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2016년 6월 계획 발표).

④ 글로벌 창작 인력 및 매개 인력 양성

- 제주지역 내의 빈 건물이나 공공 단지를 활용한 대규모 ‘제주창작센터’를 구축하여 세계에서 유입되는 창작가나 기획자들과 도내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글로벌 창작 스튜디오, 예술가와 도민, 방문객이 어울리는 전시장, 기타 관련 개인 및 단체가 입주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함.
- 제주창작센터에 입주한 주체들은 수평적인 교육을 지향하며, 대안학교인 신촌대학교(서울시 소재)와 같은 창의적 프로그램(그까짓 창업학과, 연애학과, 마이스피치학과, 예능정치학과, 몸플학과 등)을 진행함으로써 학생, 젊은 예비 기획자, 예술가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함.

3-2-4. 중점과제 4.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관광산업과 연계 지원

① 문화예술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은 문화예술진흥원 소속이고, 제주특별자치도립교향악단과 도립합창단은 제주예술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질 높은 문화산업의 방향성 모색이 필요함.

■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기관의 역량, 비전, 운영구조, 관객 참여도, 만족도 등에 대해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문화산업의 미래 계획을 수립함.

② 세계성을 확보한 대표 문화예술축제 육성

■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민간 주도로 출발하여 제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자생력을 갖춘 「제주국제관악제」를 통해 제주지역이 관악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제주국제관악제」는 도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개최기간을 확대하여 여름철 제주 관광의 주요 행사로 키우며, 국내외 홍보의 양과 질을 높여 8월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함.

③ 제주의 가치와 창의성을 결합한 복합형 생태 예술농장 운영

■ 생태와 예술의 접점을 지향하는 농장형 아트센터 <제주생태예술농장>을 건립하여 국내외에서 온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 문화 생산의 거점으로 구축함

■ 시인학교, 생태학교 등을 통한 창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생태예술농장 참가자들의 작업을 모은 도서 발간, 생태예술축제 등 다채로운 생태 관련 콘텐츠와 사업의 생산 기지이자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점 기지이며 문화관광의 메카로 육성함.

④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 브랜드화 및 문화관광 상품 개발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은 제주 전체의 브랜드화를 필요로 함. 따라서 공공 문화 자원뿐만 아니라 제주 곳곳에 있는 자생적인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등을 다각적이며 종합적으로 홍보하여 ‘문화예술 제주’라는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함.

■ 문화예술 포털사이트 구축 및 앱 개발, 제주도 아트지도 제작, ‘마을 제주’ 브랜드화, ‘제주 아트 투어’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함.

4. 분석 결과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의 중점과제는 제도 정비 및 행정기반 구축, 환경기반 조성, 예술가 창작지원, 문화산업 발전 방안 등에 역점을 두었음.
 - 이 보고서에 제시된 20개의 핵심과제 중에 추진 완료(일부 추진), 추진 중, 미추진 등으로 구분함.
- 핵심과제 추진기간은 과제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2017년~2026년에 해당되므로 2019년 기준 미추진 과제는 이후 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 가능함.
-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1-1)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있음.
 - 6단계 제도개선(특별법 개정안)안은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하여 2016년 하반기에 정부에 제출하였고, 2017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문화행정 전문가 제도 도입(1-2)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행됨.
 -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제주특별자치도문예진흥원 기관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은 그 이전부터 개방형 관장을 채용하고 있음.
- 문화유산 가치 확산 거점지원조직(1-6)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조직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문화활성화 사업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지역문화활성화팀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문화유산 활용, 해녀문화 보존·진흥, 지역문화 재생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제도 실시(1-7)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심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 주최로 ‘문화영향평가 운영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됨(2018. 10. 11.).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 대상지 기본계획(제주시 삼도2동-남성마을)이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
 - 2019년 제주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 문화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됨(제주시에서 신청함)
-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2-2)와 관련해서는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마련한 사례가 있음.
 - 구)산양초등학교를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2019년 완공 예정), 제주시 삼도2동 예술인 입주 점포 사업이 추진됨(2015~2019).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문화예술을 입히는 사업(2-5)은 일부 추진되고 있음.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매년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있음.
 - 이 사업은 정부 공모형인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개 지역씩 선정됨.
 - 2017년에 선정된 마을은 제주시 신산모루(우리동네살리기), 서귀포시 월평마을(주거지지원형) 등임.
 - 2018년에 선정된 마을은 제주시 남성마을(주거지지원형), 서귀포시 대정읍(일반근린형) 등임.
 - 2019년에는 제주시 건입동(일반근린형) 1곳이 선정됨.
-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사업(3-1)은 추진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2014), 2017년에 ‘문화예술인 창작융자지원제도’를 도입하였음.
- 예술 창작 인력 양성 기관 운영(3-2)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함.
 - 제주지역에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워지자 차선택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음악과(함덕고등학교)와 미술과(애월고등학교)를 신설하여(2017), 2018년에 신입생을 받아들임.
- 글로벌 문화예술인 유입 비자제도 개선(3-3)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 없게 됨.
- 세계성을 확보한 문화예술축제 육성(4-2)은 일부 추진됨. 즉 제주국제관악제와 탐라문화제는 매년 예산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제주대표 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음.
-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 브랜드화 및 문화관광 상품 개발(4-4) 과제는 일부 추진됨.
 - 제주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 ‘제주인물다’가 구축되었고, 예술공간 이아에서는 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됨.
- 핵심과제 중에 아직 추진되지 못한 사업은 ‘1-3, 1-4, 1-5, 1-6, 1-7, 2-1, 2-4, 4-3’ 등이 있는데, 사업별 추진 기간이 2017년~2026년에 걸쳐 있으므로 미완료 상태가 있는 것임.
- 핵심과제 중 일부는 민선 7기 문화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

Ⅲ.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1. 국정 비전과 문화정책

1-1.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문화분야 국정과제

- 현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은 국정 비전·국정 목표와 연관성을 지니는데, 이는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국민을 실질적 주권자로 하고 정의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설정한 것임.
- 이와 같은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 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 5대 국정 목표는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임.
- 문화정책 방향은 5대 국정 목표의 세 번째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5개 전략에서 찾을 수 있음.
 - 5개 전략: 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③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④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⑤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에 7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100대 국정 과제 중 문화 관련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67번)
 -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68번)
 - ‘공정한 문화산업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69번)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70번)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71번)²⁾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72번)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73번)

<그림 3-1>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국정 목표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쏠림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5쪽.

2) 국정과제 71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영역은 아니지만 문화국가 실현의 전제조건에 해당됨.

<그림 3-2>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 문화부분 7개 과제



출처: 조현성(2019), 「포용사회를 위한 일상의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세미나 자료집, 10쪽.

- 67번 국정과제(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에는 6개의 실천 과제가 있음.
 -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67-2. 동네 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 67-3. 국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
 - 67-4.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 67-5.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강화
 - 67-6. 문화 분야에 대한 재원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 국정과제 목표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금액 확대(2021년부터 1인당 10만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확대(2022년에는 360만명, 2017년부터 매년 10만명 증가),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문화도시 신규지정 확대), 문화재원 확대 등과 같은 사업이 제시됨.
- 2022년까지 문화예술 관람률 85%(2016년 대비 7%p 증가), 문화기반시설 수 3,080개(2016년 대비 19% 증가)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3-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67번)



출처: 조현성(2019), 「포용사회를 위한 일상의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세미나 자료집, 10쪽.

■ 67번 이외에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68번, 69번, 70번, 72번, 73번)

100대 국정과제	주요 정책사업
68번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권익 보장(2017년 공정성 협약 발표, 2018년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2018년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지속 추진) ·예술인 복지 강화(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국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제작·유통 환경(2017년부터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융복합콘텐츠 육성·지원, 한류 확산 및 동반 진출(2022년까지 한류팬 1억 명, 2017년 현재 6천만 명) ·세종학당 지속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확대 ·한류로 총 수출액(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 증가율 연평균 6% 달성

100대 국정과제	주요 정책사업
70번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복지(2018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2022년까지 1백만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2019년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20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100% 보급) ·지역방송 활성화 미디어산업 성장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2019년까지 방송광고판매·협찬제도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72번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환경 조성(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 태권도 문화콘텐츠화(2022년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홍보) - 국민생활 참여율(주 1회 체육활동 기준) : 2022년 64.5% 달성(2016년 59.5%)
73번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여가 사회 실현(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열린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2017년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관광산업 육성(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운영, 2022년까지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20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 육성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해 2021년 관광경쟁력평가 15위권 진입
국정과제 71번(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은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의 기반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일-가정 양립이 포함됨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4~109쪽.

1-2.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정책

-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발표된 혁신적 포용국가의 국정 비전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정 목표 3)의 전략(과제) 중 하나였음.
 -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비전으로 내세움.
 - 201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배제 없음’이 주요 핵심어이지만 복지국가, 포용국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용어가 일부 수정되었고, 사회정책 비전에서 국정 비전으로 확대됨.³⁾

■ 정책브리핑(2019. 2. 19.)에 따르면,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

■ 2018년 9월 11일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 및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발표함.

-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요지는 ‘국민의 삶을 바꾼다’는 데 있으며, 이것은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격차를 줄이려는 것임. 즉 경제영역은 발전했는데 사회영역은 뒤쳐져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 경제지표와 사회지표의 격차란 예를 들어 GDP 순위는 11위인데, 1인당 GDP는 30위, 사회지출비 순위는 29위, 성평등 순위는 116위에 불과하여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킴. 이에 정부에서는 최소주의 사회정책을 벗어나서 포용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임.

■ ‘혁신적 포용국가’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은 다음과 같음.

- 3대 비전: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 전략 1: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전략 2: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전략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전략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전략 6: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 전략 7: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전략 8: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전략 9: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 최소주의 사회정책을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는 관계부처 협동으로 2019년 2월 제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서 수치로 나타남.

- 한국인의 삶은 돌봄, 배움, 일, 쉼, 노후에서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결과 일은 많이 하지만 아동결핍지수는 높고, 평생학습 참여율은 낮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노인 빈곤율이 높음.
- 이러한 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수가 삶의 질 지수(BLI)이며, 한국은 2017년 OECD 기준 29위임.

3) 조현성(2019),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정책」, 『웹진문화관광』 6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혁신적 포용국가를 문화정책에 한정해서 보면, ① 수동적·소비 위주의 문화정책을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② 공급자 지원정책에서 생애주기별 참여자 지원정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임.
-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다양한 문화영역 지원을 통한 문화선택권 보장, 문화정책의 개별화와 분절화를 극복하여 일상의 문화향유권, 개인의 창의성 회복을 목표로 함.
- 이와 같은 문화정책은 9대 전략 가운데 ‘전략 7.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에 포함됨.
 - 전략 7은 교육정책, 문화정책, 청소년정책 등으로 구성됨.
- 문화영역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인프라 공급, 프로그램 확대, 이용금액 확대 등을 실시하고자 하였음.
 - 문화기반시설 수 18% 증대, 노인 문화예술교육 30% 증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금액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시재생 연계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대하면 문화예술 관람률이 3.5%p 증가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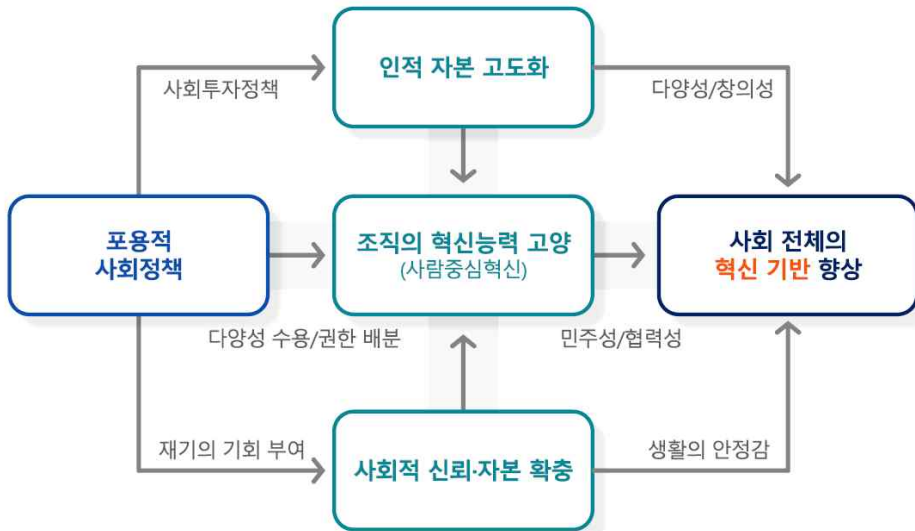
1-3. 국정 비전에 나타난 문화정책

- 2017년 7월 발표된 국가 비전(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5대 목표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그것은 각각 정책추진체계, 경제, 사회, 지역, 남북 및 국제관계와 조응됨.
 - 국민이 주인인 정부(정책추진체계), 더불어 잘사는 경제(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사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남북 및 국제관계)
 - 문화정책은 사회정책(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내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로 구체화됨.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적극적 사회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2018년 혁신적 포용국가와 연계됨.
- 문화국가 실현은 생활문화, 예술인 복지, 문화생태계 조성, 한류 확산, 스포츠 향유권 확대, 관광복지 및 관광산업 발전 등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해 온 모든 정책을 포괄함.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일상과 지역의 문화화, 문화의 일상화와 지역화(국정과제 67번)임. 이는 저소득층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동네 단위 문화환경,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재원 확대와 매개인력 확충 등과 같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문화정책을 포괄하고 있음.

- 국정과제에 제시된 문화정책은 사회정책 내에 위치하여 이전과 구분되는 새로운 정책방향과 정책사업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나, 기존 문화관광체육정책을 포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문화정책이 사회정책의 일부로 다뤄진 것은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남. 즉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복지)가 경제와 비교하여 뒤쳐져 있다는 진단에 따라 최소주의 사회정책을 벗어나려는 시도임.
- ‘혁신적 포용국가’가 사회정책 비전에서 국정 비전으로 바뀐 것은 담론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데, 이는 2019년 4월 발표한 생활SOC 관련정책에서 나타남.
 - 이는 일종의 공급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전 정책과는 성격이 조금 다름.
 - 포용국가에서 언급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문화향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참여형 문화시설 확충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꿈꾸는 예술터, 메이커 스페이스 등을 확충하려는 것임.
 - 공공도서관 4% 증가(도서관은 4km, 즉 10리 안에 도서관 1개소), 작은도서관 11% 증가, 생활문화센터 112% 증가, 메이커 스페이스 453% 증가 등이 계획됨.
- 한편,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은 계획·실행 중이지만 혁신을 위한 문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임.
- 다만 ‘혁신적 포용국가’ 담론에서 포용과 혁신은 상호보완적임. 즉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의 결과(배제)를 보완하는 상보적 관계(<그림 3-4> 참조)라고 볼 수 있는데⁴⁾ 향후 구체적인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임.
- 문화정책 측면에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일-가정 양립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역분권(균형발전)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5대 국정 목표 가운데 네 번째)으로 표현되고 있음.
 - 국정과제는 ‘획기적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74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75번),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76번),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77번) 등임.
 -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주민참여제 활성화(주민 참여예산제도 포함), 마을자치 활성화, 국세-지방세 개정, 이전 재정 지원 및 재정균형 달성 등이 포함됨.
 -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추진(2018년까지), 특별법 개정 추진(2019년까지) 등이 해당됨. 구체적으로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의 지방이양이 포함됨.

4) 조현성(2019),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정책」, 『웹진문화관광』 6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3-4>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 혁신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출처: 조현성(2019),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정책」, 『웹진문화관광』 6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자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9. 11)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15쪽.

- 지역분권(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 및 전략」(2018. 9. 11.) 중 사회 정책 비전 9개 전략 가운데 ‘전략 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으로 표현됨.
 - ‘도시재생 뉴딜 전국 확산’, ‘지자체 주민역량 강화+혁신거점 조성+젠트리피케이션 대응+거버넌스 구축’, ‘혁신 플랫폼 국가 시범도시 조성’,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확산모델 구현’, ‘혁신도시 시즌 2’,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대’ 등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지역분권(균형발전) 추진은 문화정책 추진에서 새로운 환경을 의미함. 특히 100대 국정 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모델 완성⁵⁾이 제시됨.
- 또한 일-가정 양립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여가문화 시간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과제 71번⁶⁾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일-가정 양립 등임.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 및 전략」(2018. 9. 11)의 ‘전략 7. 인적자본의 창의성·

5) 제주의 경우 신성장동력에 문화, 교통관광이 포함되며 이것의 이양을 의미함

6)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다양성 증진'에는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으로 '쉽과 여유를 통한 일상적 문화향유권 실현으로 개인의 내재된 창의성 회복'을 제시함.

- 따라서 국정과제와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문화정책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국가 실현이 일상과 지역에서 일-삶의 병존을 통해 가능성을 밝히고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 비전과 계획

2-1.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 현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에 잘 드러나는데, 이 계획의 의미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음.⁷⁾
- 첫째, 「창의한국」(2004) 이후 문화정책의 비전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 「문화비전 2030」은 비전, 3대 가치(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186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함.
 - 비전(사람이 있는 문화)이 현 정부의 정책 지향성을 보여준다면, 3대 가치는 「문화기본법」(2013)의 기본이념과 일치하며, 「문화비전 2030」은 새로움은 물론 계승이란 측면을 지니고 있음.
- 둘째, 「문화비전 2030」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이 참여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함.
 - 새문화정책준비단(민간위원 27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년 동안 협력하면서 「문화비전 2030」을 수립함.
 - 기초 발표(2017. 12.) 이후 국민제안과 온라인 소통(문화정책 분야 900여 명 참여, 136개의제 도출, 온라인 제안 252개)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함(2018. 5.).
 - 최종안 발표 이후 다시 내용을 보완하여 책자를 발간함(2018. 12.).
 - 포용은 비배재성의 원칙이기에 다양한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이므로, 「문화비전 2030」의 수립 과정은 폭넓은 소통과 참여를 보여줌.
- 한편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과 추진과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화비전 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는 기존 문화정책이 목적(문화정책을 통한 국민에게 어떤 즐거움)과 방법(문화가 국민 삶의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에

7) 조현성(2019),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정책」, 『웹진문화관광』 6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문화 자체를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문화의 기능·역할·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성·정체성·본질성을 문화를 통해 질문하고자 하는 시도임. 즉 “문화의 근본원리를 중시하고, 문화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이해와 동의”를 통해 문화의 본질적 가치와 그것의 사회적 확산을 꾀하고자 했음.⁸⁾

■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문화기본법」에 적시된 문화의 원리(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와 같으며(다만, 기본법의 창조성을 문화비전에서는 창의성으로 함), 이것이 3대 방향에서 다시 언급됨.

■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은 ①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②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③ 사회의 창의성 확산으로 표현됨. 여기서 자율성은 개인, 다양성은 공동체, 창의성은 사회와 짝을 이루지만 반드시 일대일 대응으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문화비전 2030’은 3대 방향에서 각각 3개 의제를 도출하여, 모두 9대 의제를 설정했음(<그림 3-5> 참조).

<그림 3-5> 문화비전 2030의 비전과 방향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가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방향	3대 방향	9대 의제
	1.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③ 성평등 문화 실현
	2.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④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⑥ 지역 문화분권 실현
	3. 사회의 창의성 확산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9대 의제		

출처: 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87쪽 재구성함.

8) 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52~53쪽

■ 9개의 의제별로 제시된 대표과제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3-2> 문화비전 2030 추진과제

의제	대표과제	추진과제
① 개인의 문화 권리 확대	1. 문화권 확산	·문화권 2030 선언, 헌법에 기본권으로 문화권 반영, 문화영향평가제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2.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 환경 조성	·쉽이 있는 삶 캠페인, 노동시간 총량관리 및 휴가권 강화, 여가경력 개발, 여가친화환경 기반 마련
	3.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통합문화이용권 제도 개선 및 확대, 생애주기별 문화 복지 확대, 생활문화공간 재편성에 따른 문화향유 확대
	4.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문화향유 생태기반 구축, 근린 문화생활기반시설 이용 활성화, 지역문화시설 관객참여 계획 수립, 전국관광지 접근성 향상, 가족친화 문화놀이터, 생활밀착시설 공급(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생활공간 중심의 체육 참여환경 조성, 누구나/언제든/어디서든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예술정책
	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분권화 및 지역생태계 조성, 문화예술교육가(학교 예술강사 등) 권리 강화, 수요자 맞춤형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영역 다변화, 문화예술교육 강화로 예술 수요기반 확대, 미디어 문화교육 활성화,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생활 속 자생적인문 확산 기반 구축
② 문화 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1.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예술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도 기반 강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2.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가칭) 운영, 예술인 직업분류와 취업기준 차별화, 저작권제도 개선, 예술인과 예술에 대한 인식제고, 부서 간/부처 간 정책협력체계 구축,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예술가 직업훈련·직업개발 여건개선 및 지원, 미성년·신진예술가 보호와 지원 법제화,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운영 및 스포츠복지 강화, 문화예술계 위계 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3.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	·예술인 연금제도 및 의료지원정책 마련, 예술인 고용 보험 도입 및 예술인복지센터 개소, 범정부차원의 예술인복지 정책 활성화, 예술인 창작주거 연계복지 확산, (가칭)예술인복지지역협력위원회 구성,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운영개선, 스포츠인의 복지증진 기반마련
	4. 자율성과 협치 중심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 혁신	·문화행정·현장 문화예술인의 협치 기반 조성,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③ 성평등 문화	1.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침해 구제 관련 법제화 추진,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및 활용, 성차별·성폭력 신고 및 피해자 보호·지원센터 설치

의제	대표과제	추진과제
실현	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성평등 계약지침 마련 및 표준계약서 내 성폭력 관련 조항 의무화, 성차별·성폭력·위계폭력 공적 배제 및 규제, 정책의사 결정 및 정책사업에서 성평등 제도화, 성평등 고용실현 및 여성인력 처우개선
	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분야별 여성활동 활성화 지원, 여성문화·체육활동 사회적 평가 및 인식 제고, 문화정책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재원확보
④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 강화와 법제 정비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강화 및 총괄부처로 문체부 책임성 제고, 정부 간 협력체계 및 시민참여 확대, 문화다양성을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정책개념 및 범주 재정립
	2.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 제고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 법제화,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규정 신설, 지역문화정책·미디어·콘텐츠 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실현방안 마련
	3.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정체성 개념 및 정책범주 정립,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을 위한 문화생태계 모델 개발, 문화정체성 기반 예술지원
	4.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지역어 보존 및 진흥으로 언어문화 다양성 증진, 점자수어 진흥
	5.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현대화	·전통문화정책의 안정성 및 체계적 추진, 현황조사(지역 전통문화·생활문화·공동체문화) 및 발굴·활용, 전통문화·공연 향유 프로그램 확대, 현장·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과 전승
	6.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정책 마련	·관광영역 발생 문화갈등 조사·분석, ‘공존하는 관광’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글로벌관광문화플라자 건립, 재외문화원 등 한국관광 홍보기능 강화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	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문화다양성 확보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다원 예술 창작-제작-유통 생태계 조성, 예술-기술 융합 및 관객체험형 문화공간(한국형 아티스트 일렉트로니카센터 건립), 커뮤니티 예술 지원과 예술 공동체 활성화, 다문화 예술인과 이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설립
	2.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마련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예술가 사례비 제도화, 예술지원 심사의 공정성 및 다양성
	3.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확대와 서면계약 의무화, 불공정관행 신고센터 역할 확대, 예술창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및 합리화
	4. 문화콘텐츠 유통과 노동 불공정 개선 법률 제정	·콘텐츠시장 공정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 마련, 콘텐츠 유통 불공정 개선·감시 제도화, 콘텐츠 불법유통·불공정 거래 관련 관리감독 및 제재 근거 마련,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5.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혁신과 민간 예술단체 창작 다양성	·공공극장 운영 중심→지역 민간단체 공동 제작지원, 문예회관: 대관 중심→기획 중심,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의제	대표과제	추진과제
	실현	공동제작 및 공동배급 네트워크, 공연예술 민간기획사 매개역할 강화
	6. 공정하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 조성	·(가칭)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운영, 체육특기자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 추진, 스포츠 공정인식 개선과 정착
	7. 출판 다양성 실현	·출판유통 통합시스템을 위한 민간참여 모델 개발, 도서정가제 보완과 정착 및 공정 출판생태계 조성, 출판 산업생태계를 위한 정책 마련, 출판정책 재정기반 확대 및 출판 혁신동력 확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위상 및 역량 재정립, 출판 다양성 확보
	8. 관광산업의 공정상생을 위한 지원	·관광산업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 조사 및 분석, 관광산업의 상생 생태계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관광산업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⑥ 지역 문화분권 실현	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역문화재원 지속적 확충, 포괄보조사업 확대, 지역 주민 참여문화예산제도 지원, 지역 문화정책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지정 활성화,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여가가 있는 삶의 방향 정립·지원 다각화(생활문화의 일상화), 누구나/어디서나 문화적 삶이 가능한 지역 만들기, 지역 문화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읍면동에 청년 중심의 '문화일꾼' 배치, 지역 문화기관(기구)-시설/공간-문화현장 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2.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문화도시조성사업 본격 추진(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역 고유 문화자원 활용 재생사업 확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 중앙지역-지역 간-지역 내 협력체계(콘텐츠산업 협치), 지역 축제 지원체계 개선, 지역 전통문화 연구 및 활용 활성화,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학 육성, 책으로 소통하는 생활(마을)공동체 구현
	3.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생활권 기반 커뮤니티 문화공간 확대, 문화기반시설 운영 혁신, 지역문화재단 운영 혁신(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강화),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 제도화 추진, 문화기관 특성을 살린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
	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지역문화/예술 협력체계 구축
	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가치 제고의 관광생태계 조성, 한국형 공정 관광모형 개발, 지역의 외국인 관광 수용태도 개선, 비수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확대, 모든 사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 편익환산제도와 정책 개발(관광편익 지역 환원), 도시의 정체성 살린 관광 매력도시 육성, 지역관광 역량과 기반 강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한국형 DMO설립 지원(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의제	대표과제	추진과제
	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인권으로서 스포츠(행복추구권, 건강권, 문화권) 정책 추구, 지역공동체 확산을 위한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함께하는 스포츠, 복원하는 지역 공동체),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협치를 위한 스포츠클럽 및 지자체 체육단체 역할 정립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1.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	·생애주기별 창의교육 접근 기회 확대, 협력-협업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의 창의공간화, 융합 연구·교육·시범 프로젝트의 협업기반 마련, 책 읽는 문화 조성(창의 인재 양성)
	2. 문화자원 관련 산업의 융합기반 조성	·R&D 투자 확대 및 정책연구-전략기획 지원 강화, 문화자원 융합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3. 문화자원과 신기술·지식 융합 촉진	·체감형 기술로 아날로그 경험 확장 지원, 스마트 지식·기술기반 관광서비스 발굴, 신기술 활용 스포츠 본연가치 강화 및 새로운 유형 스포츠 발굴
	4. 문화자원의 기록·보존 체계 강화	·문화자원 기록·보존·활용 체계 개선, 한글 문화자원 발굴 및 가치 확산
	5. 문화자원 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재규정, 문화 분야 세제 등 지원제도 개선 추진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1. 문화·체육·관광 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획기적 전환	·지속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 구축, 남북 문화·예술·체육·관광 교류 확대와 활성화, 남북 문화동질성 회복 프로젝트 추진
	2.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문화콘텐츠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입체적(지역/주체 등) 국제문화교류활동 지원체계 구축
	3. 지원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확대	·예술인·청소년·청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문화 분야 ODA 적극 확대
	4.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화의 섬·문화로드 프로젝트	·‘백령도 문화(평화)의 섬’ 프로젝트 추진, DMZ 문화로드 프로젝트 추진
	5.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 교류협력 기반 조성	·아시아 문화교류 협력국가와 사업 다각화, 동아시아 자유관광 기반 조성 추진,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지원 기반 조성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1.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사회부처 중심의 협력체계 강화(사회문화부총리제 도입 추진), 의제발굴과 실행 협력체계 구축, 문화영향평가 확대와 실효성 강화
	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문화로 바꾸는 삶’(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 개선) 추진, 문화시대(일터와 쉼터 결합) 조성 검토, 문화와 사회혁신 분야 프로젝트 기반 ‘혁신학교’ 운영
	3. 공공 문화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공동체형 문화 일자리 확대, 미래일자리 변화에 정책적 대응
	4.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의한 지역·공간 재생	·지역주민 주도 문화자원 활용 마련 및 운영, 문화적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5.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	·환경·에너지·생태 중심 문화적 전환도시 계획 도입, 문화시설 및 행사에 에너지 전환 개념 도입

2-2. 문화정책관련 기본계획

2-2-1. 개요

-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립·발표된 법정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3> 법률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현 정부 출범 이후)

근거법률	계획수립 현황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문학진흥법	제1차 문학진흥 기본계획(2018~202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2018~2022)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018~2022)
독서문화진흥법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
도서관법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

- 현 시점(2019년)이 기본계획 추진 기간에 포함되지만,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수립된 계획은 다음과 같음.

- 「문화기본법」에 따른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
- 「국어기본법」에 따른 제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17~2021)

- 계획수립을 위한 관계 법률은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새 예술정책(2018~2022)」과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음.

- 주요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⁹⁾

9) 현재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수립 중임. 이 계획은 2020년이 실행 첫 해 이므로, 2019년 12월 기준 발표된 것임.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차 계획을 제시하였음.

2-2-2. 새 예술정책(2018~2022)

- 「문화비전 2030」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을 포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일반을 다룬다면, 예술에 특화된 정책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새 예술정책(2018~2022)」에 집약돼 있음.
- 「문화비전 2030」과 마찬가지로 「새 예술정책」은 2017년 10월 예술인, 정책 전문가, 예술행정 담당자(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협치 모임(새예술정책수립TF)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수립함.
 - 2018년 5월 16일 「문화비전 2030」과 같이 발표됨(문화체육관광부/새문화정책준비단·새예술정책수립TF 주관행사).
 - 2018년 5월 발표 이후, 집필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책자 형태로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새 예술정책(2018~2022)』을 발간했으며, 비전, 4대 목표, 8대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를 도출함.
- 비전은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와 짝을 맞춰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으로 설정함.
- 4대 목표는 ①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②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③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④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등으로 설정함.
- 4대 목표별로 각 2개씩 모두 8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함.
 - ①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② 예술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③ 예술 가치 창출과 발현에 중점을 둔 창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 ④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를 펴겠습니다,
 - ⑤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⑥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⑦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⑧ 예술의 미래 가치를 키워하겠습니다,
- 8개 전략과제별 실행과제는 3개씩이며, 전략과제 8(예술의 미래가치)의 실행과제가 4개이므로, 실행과제는 모두 25개임.
- 또한 25개 실행과제별로 대표사업을 2~5개씩 선정하여 모두 83개의 대표사업을 제안함.

<그림 3-6> 새 예술정책의 비전과 전략과제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4대 목표	8대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
자유와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행정혁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예술인의 사회 적 지위 보장 ·예술계 성평등 실현으로 예술활동의 다양성 증진
	예술행정의 독립성과 자율 성을 높일 것입니다	·기관별 역할 재편을 통한 예술지원체계의 재 구성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예술지원체계 형성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예술 가치 창출과 발현에 중점을 둔 창작 지원을 하 겠습니다	·예술 현장의 자생성을 강화하는 창작 지원 ·경력 단계별, 창작 과정별 지원 프로그램 강 화·공공 예술 자원과 민간 예술계의 상생 협력 강화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 지를 펴겠습니다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예술인 생활 지원 확대 ·예술인 직업 환경 개선 및 직업 활동 다양화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 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 향유 역량 강화 ·수요 창출형 관객 지원 제도 도입 ·일상에서 누리는 예술 향유 기반 조성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수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소수자 예술공간 조성 및 교류 ·소수자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 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상생협력의 예술시장 환경 조성 ·활력 있는 예술시장을 위한 혁신 역량 지원 ·예술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예술의 미래 가치를 키워 가겠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지원 강화 ·진화하는 기술의 예술분야 활용 지원 확대 ·실험과 도전의 새로운 예술 공간 조성 ·국제 예술 교류와 협력 확대

출처: 새예술정책수립TF·문화체육관광부(2018),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새 예술정책 (2018~2022)』, 58쪽.

<그림 3-7> 새 예술정책의 실행과제와 대표사업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8대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 83개 대표사업	
1-1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1-1.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행정혁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결과의 보존 및 공개 ·국가에 의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와 피해자 보호 법제화
	1-1-2.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의 불균형 해소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 ·예술인의 노동·직업에 관한 권리 보장 법제화
	1-1-3. 예술계 성평등 실현으로 예술활동의 다양성 증진	·문화예술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 ·예술계 성평등을 위한 예술행정의 혁신 ·여성 예술인 지위 보장을 통한 예술활동 다양성 증진
1-2 예술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2-1. 기관별 역할 재편을 통한 예술지원체계의 재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술지원체계 재편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 조정
	1-2-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1-2-3.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예술지원체계 형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혁신 ·예술인 참여형 협치 및 본권체계 형성
2-1 예술 가치 창출과 발전에 중점을 둔 창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2-1-1. 예술 현장의 자생성을 강화하는 창작 지원	·예술단체 장기/집중 지원제도 도입 ·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지역 문예회관 운영 혁신 ·다양한 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확대
	2-1-2. 경력 단계별, 창작과정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예비 예술가 지원 방식 개선 및 확대 ·중견 이상 집중 지원 지원체계 마련 ·‘창작산실’의 개선 및 확대
	2-1-3. 공공 예술 자원과 민간 예술계의 상생 협력 강화	·공공 예술기관과 민간 예술계의 상생 협력 모델 개발 ·국공립 예술 기관/단체 자율과 책임 경영체계 기반 구축 ·공연예술 축제 및 경연대회 혁신
2-2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를 펴겠습니다	2-2-1.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지원 ·예술인 사회보장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예술인 산재보험 개선 및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강화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8대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 83개 대표사업	
	2-2-2. 예술인 생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을 통한 생활대출 지원 도입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술인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예술인 패스’ 제도 개선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사업 확대
	2-2-3. 예술인 직업 환경 개선 및 직업 활동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직업군 분류와 실태조사 ·예술 기반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선 및 재구조화 ·공정한 예술 사례비 및 보수 체계 마련 ·예술인 공공 참여를 위한 사회적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
3-1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1-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 향유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수요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및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3-1-2. 수요 창출형 관객 지원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지원을 통한 예술소비 활성화 ·문화시설 관객 체험 프로그램 및 예술주간 행사
	3-1-3. 일상에서 누리는 예술 향유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마을단위 예술단체/예술인 상주 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 환경 조성 ·찾아가는 예술감상 프로그램 개선
3-2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2-1. 소수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기반 조성 ·장애인 문화예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보조장비 개발
	3-2-2. 소수자 예술공간 조성 및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전용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소수자 예술 창작의 수월성 제고 및 활성화 ·이산(디아스포라) 문화 활성화 지원 ·소수자 예술 매개자 및 협력 예술가 육성 ·장애인 남북 예술교류 및 국제 네트워킹 확대
	3-2-3. 소수자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참여 사회적 예술 활성화 ·지역에서의 소수자 예술 플랫폼 구축 ·소수자 예술의 사회적 인식 및 정책 기반 강화
4-1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1-1. 상생협력의 예술시장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시장의 공정 기반 구축 ·예술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예술의 중 다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예술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식정보생태계 조성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8대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 83개 대표사업	
4-2 예술의 미래 가치를 키워가겠습니다	4-1-2. 활력 있는 예술시장을 위한 혁신 역량 지원	·예술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창업 지원 ·예술 매개자의 혁신역량 지원 ·새로운 예술시장 창출을 위한 예술과 기업의 협력 강화
	4-1-3. 예술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전략적·입체적 해외 진출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공지원 체계화 ·해외유통 전문 에이전시 교육 및 지원 확대 ·예술기관/단체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4-2-1.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지원 강화	·청년 예술인 지원 기반 조성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 확대 ·청년 예술인 일자리 지원 확대
	4-2-2. 진화하는 기술의 예술분야 활용 지원 확대	·기술혁명시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예술적 상상 촉진 ·예술인의 기술융합 역량 강화 ·예술-기술 융합형 문화예술공간 조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예술시장 연계 기반 구축
	4-2-3. 실험과 도전의 새로운 예술 공간 조성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국립한글박물관 설립 추진 ·전통문화예술TV 설립 ·전통공연예술 창작공간 조성
	4-2-4. 국제 예술 교류와 협력 확대	·예술인의 국제 이동성 지원 ·차이와 공존으로서의 예술교류 생태계 조성 ·한반도 평화번영시대 남북예술교류·협력 활성화

출처 : 새예술정책수립TF·문화체육관광부(2018),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새 예술 정책 (2018~2022)』를 참조하여 재구성.

2-2-3. 문화예술 분야 중장기계획

①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

■ 비전, 5대 정책목표, 18개 추진과제(58개 실천과제)를 제시함(2015. 7. 28.).

- 비전: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

■ 5대 정책목표는 ① 문화가 있는 삶, ②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③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④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⑤ 문화진흥 기반구축 등임.

<그림 3-8>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목표

비전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	
정책목표	정책목표	추진과제(18개)
	1. 문화가 있는 삶	1.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2.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3.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 4.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5. 참여·체험형 문화향유 환경 조성
	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6.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7.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브랜드 정립 8.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
	3.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9.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10. 호혜적 국제 문화교류 강화 11.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4.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12.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 13.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5. 문화진흥 기반구축	14. 문화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 15. 문화예술계 비정상적 정상화 16.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17.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 강화 18.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 22쪽.

-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문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문화의 보편화, 국민행복 중심 정책, 사회통합
 - 문화가 바탕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지역 문화정책체성 확립, 주민 문화주체성 고양
 - 세계와 호흡하는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 한류 지속 확산, 경제 도약 기여, 국가 품격 제고
- 2014년 대비 2019년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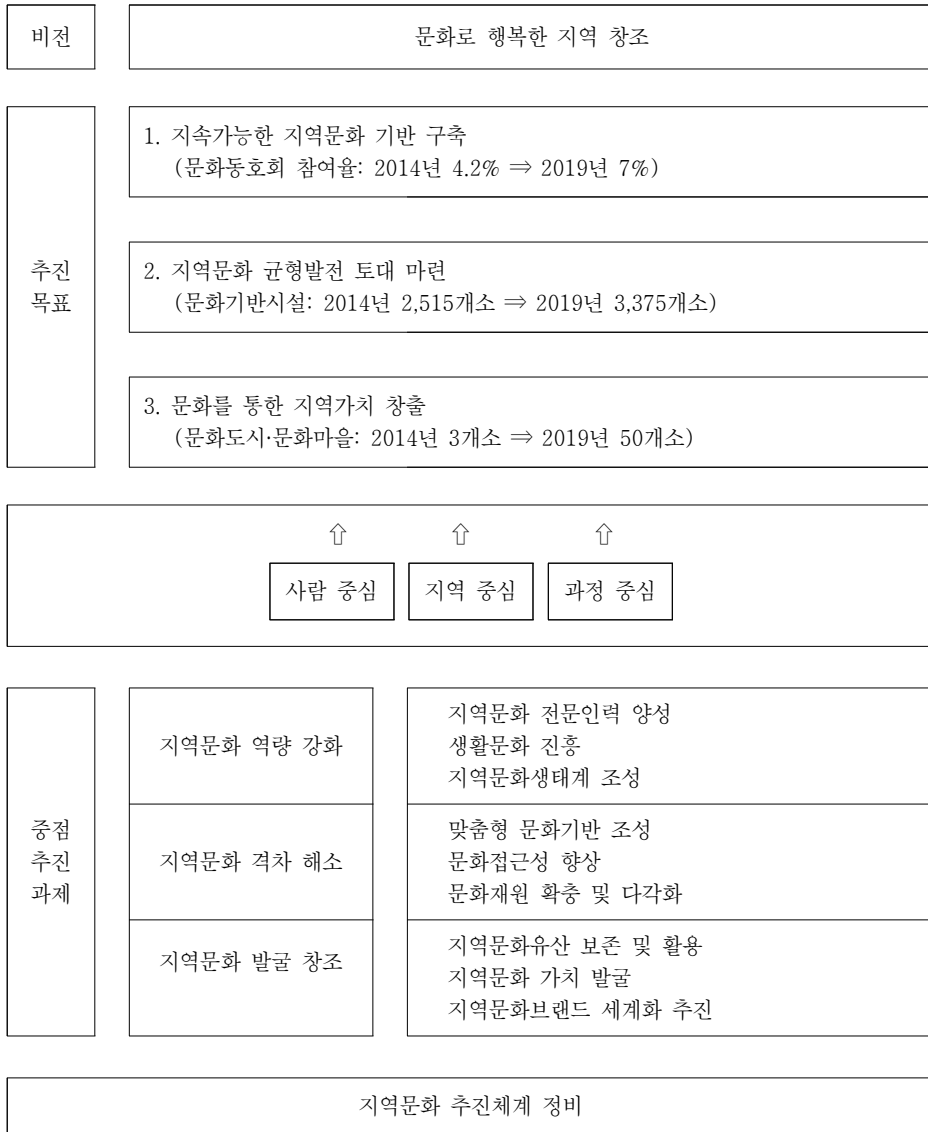
<표 3-4>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19년 목표)

구 분		2014년	2019년
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67만명	380만명
	생활문화 참여율	5%	10%
	문화기반 시설 수	2,515개	3,375개
	문화예술 관람률	71.3%	80%
	문화복지 수혜자 수(누리카드)	144만명	200만명
한국문화원 수		28개소	34개소
세종학당 수		130개소	180개소

②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지역을 풍요롭게 문화를 다양하게 지역문화진흥’이란 이름으로 2014년 10월 발표됨.
- 비전을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로 설정하고, 3대 추진목표, 3대 중점추진과제, 37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그림 3-9>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12쪽.

■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37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3-5>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37개)

중점 추진과제	추진과제
과제 1. 지역문화 역량 강화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2. 지역문화 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1-1-3.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1-2. 생활문화 진흥
	1-2-1.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1-2-2.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1-2-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1-3-1. 지역문화 관련 법·제도의 정비
	1-3-2.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1-3-3.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1-3-4.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 사업 지원
	1-3-5.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과제 2. 지역문화 격차 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2-1-1. 수요맞춤형 문화기반시설 조성
	2-1-2. 지역문화기반 시설 균형적 확충
	2-1-3.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2-2-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2-2-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2-2-3.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참여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화 유도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2-3-1.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2-3-2.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2-3-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과제 3. 지역문화 발굴 창조	3-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3-1-1. 지역문화루트 개발

중점 추진과제	추진과제
	3-1-2.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공간 창조적 재생
	3-1-3.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3-1-4. 마을별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3-2. 지역가치 발굴
	3-2-1.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3-2-2.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3-2-3.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3-3-1.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3-3-2.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3-3-3.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3-3-4.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3-3-5.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효율적 지역문화정책 수립·집행체계 · 지역문화진흥원 설립·운영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42~43쪽.

③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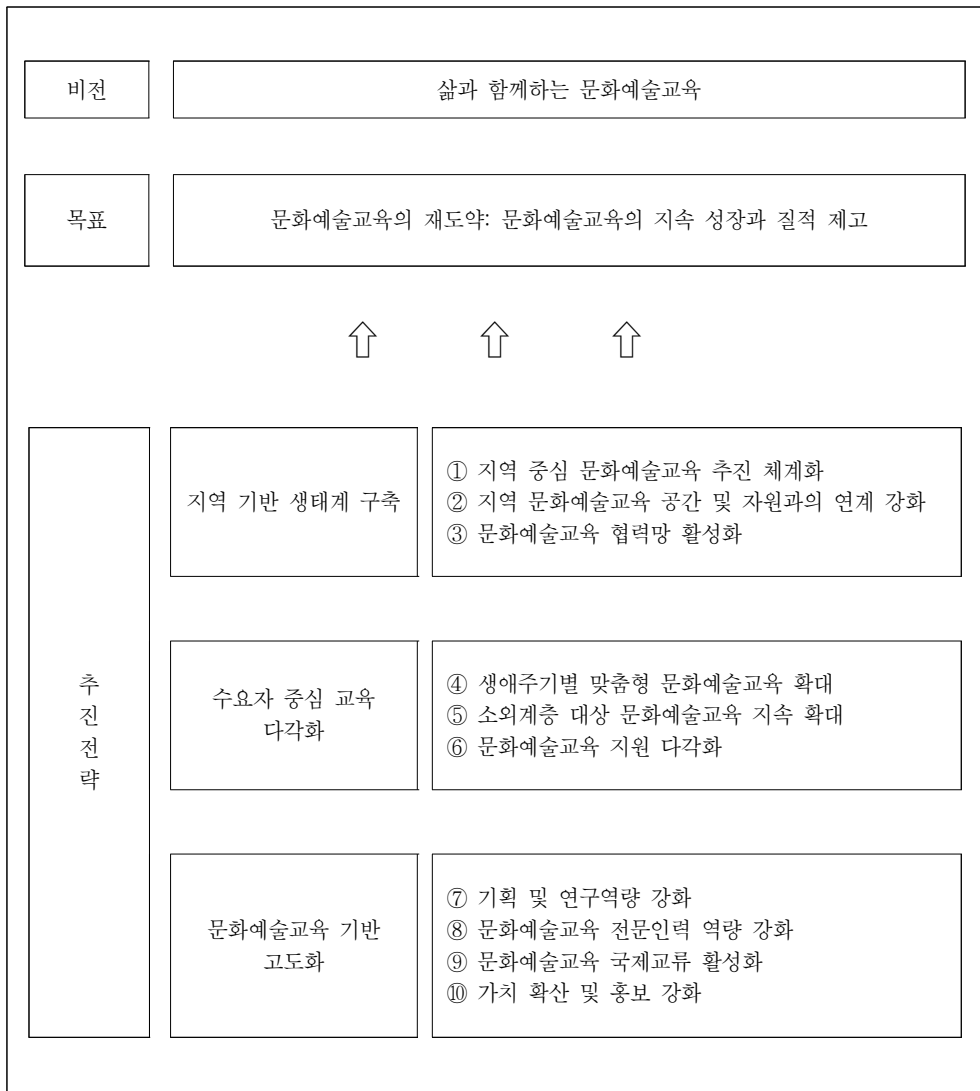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월 11일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함.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분석을 통해 4개의 방향으로 ① 지역 분권화, ② 정책 체계화, ③ 수요 특성화, ④ 융합과 확장 등을 설정함.

■ 비전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와 조응하며, 목표는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구함.

■ 3대 추진전략은 ①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②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③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이며, 이 가운데 핵심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화로 보임.

<그림 3-10>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비전과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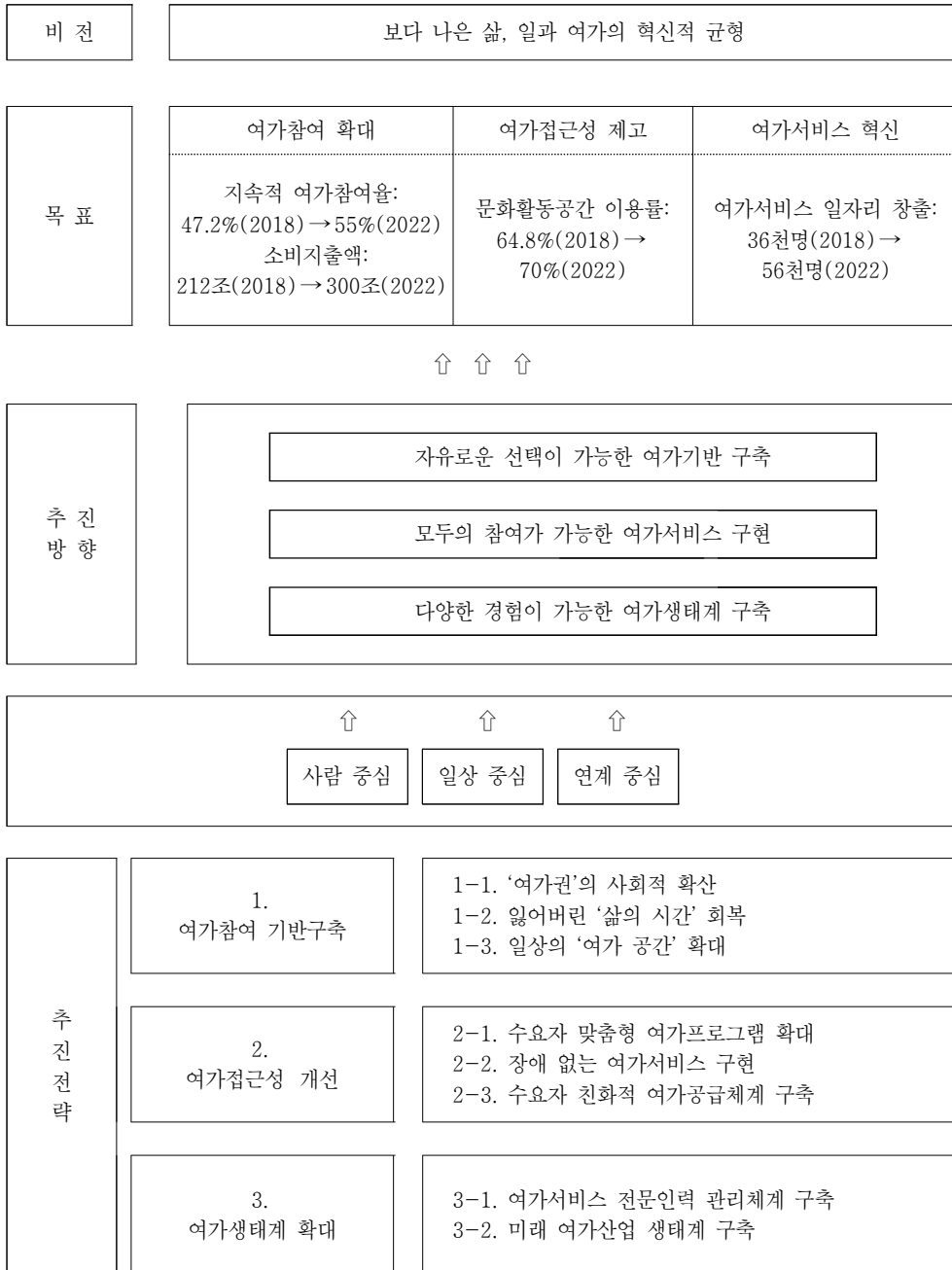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11쪽.

④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 문체부는 2018년 6월에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함.

■ 비전은 ‘보다 나은 삶, 일과 여가의 혁신적 균형’이며, 3대 추진목표, 3대 추진방향,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함.

<그림 3-11>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비전과 추진전략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8쪽.

⑤ 제1차 문학진흥 기본계획(2018~2022)

■ 비전은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으로 정함.

■ 목표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3대 목표: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 문학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국문학의 세계적 확산
- 4대 추진전략: 문학 창작지원 확대, 문학 향유기반 구축,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 및 문학 교류 강화, 문학진흥 인프라 구축
- 15개 추진과제, 5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함.

⑥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018~2022)

■ 비전은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로 정함.

■ 목표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3대 목표: 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
- 4대 추진전략: 국제문화교류 진흥 세계화,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 17개 추진과제, 33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⑦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 이 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미술 전반을 포괄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함.

■ 비전은 ‘미술로 행복한 삶’으로 정하고, 목표는 ‘선순환의 미술 생태계 조성’으로 선정하였으며, 4대 추진전략과 16개 핵심과제를 제시함.

⑧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월에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으며, 비전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으로 선정함.

■ 3대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전략과제, 16개 핵심과제, 39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 3대 목표: ① 공공성 강화, ② 전문성 심화, ③ 지속가능성 확보

■ 3대 전략과제는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 위상 강화,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전문적 기능과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임.

2-3. 2019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2019. 3. 11.)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 제시된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임.
 - 문화비전 2030의 ‘사람이 있는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고 ‘문화국가’를 추가한 것임.
- 목표를 평화, 포용, 공정, 혁신으로 설정했는데, 포용과 혁신은 국정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연계됨. 평화는 2019년 3·1절 기념식에서 발표된 ‘신한반도체제’와, 공정은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와 연계됨.
- 4개 목표에 따라 모두 10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함.

<그림 3-12>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비전과 과제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목표	① [평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②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③ [공정] 공정한 문화 일터	④ [혁신]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과제	1. [남북]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2. [해외] 상호 문화교류 확대	3. [문화복지] 포용하고 나누는 문화 4. [향유 시설] 생활문화 기반 시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5. [문화 활동] 풍부한 문화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6. [문화·콘텐츠]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시장 공정성·안정성 제고 7. [스포츠]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	8. [콘텐츠] 문화콘텐츠산업 신시장 창출 및 기업 활동 지원 9. [관광] 관광시장 활성화 및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10. [스포츠]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및 인력 양성 11. [문화예술] 기초예술과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 확장
※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 협업·안전·소통의 행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2-4.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과 지방이양 사업

- 문재인 정부는 지역분권을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문화 관련) 정책사업의 지방이양에서 구체화됨.
 -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30%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계획임.
 - 2020년에는 3.5조원 예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임.
 - 2018년 10월 23일,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즉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사업 중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관광개발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예산규모는 4,036억 정도임.

<표 3-6>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 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문예기금

구분	지방이양 사업	중앙정부 존속사업
균특 자율계정 (시도)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 문예회관 건립 지원 -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 전통문화진흥 지원 -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복합문화시설 조성 - 전통사찰 보수 정비 -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 작은도서관 조성
	○ 관광자원 개발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 지방문화사업 기반지원	
	○ 지역문화행사 지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 -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 - 지방체육시설 지원 -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문예 기금	○ 예술의 관광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의 2019년도 예산(236,690백만원) 중에 43%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방에 이양됨(제주계정, 세종계정 제외).
 - 정부에서 지속하는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136,093백만원으로 전체의 57.5%에 해당됨.
 - 정부 지속사업: 공립 박물관 건립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작은 도서관 조성
 - 전체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 2020년 지방 이양되는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100,597백만원으로 전체의 42.5%임.
- 한편 2020년 정부 지속사업 4가지 예산총액은 280,092백만원임(제주계정, 세종계정 제외).
 - 2019년 기준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더라도 전체(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은 생활문화센터·공공 도서관·공립 박물관 조성예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임.

<표 3-7>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액 및 증감률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9,832	13,345	17,326	3,981	30%
생활문화센터 조성	7,832	18,609	59,904	41,295	222%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64,434	80,861	198,330	117,469	145%
작은도서관 조성	872	23,278	4,532	▲18,746	▲81%
계	82,970	136,093	280,092	143,999	106%

2-5. 문화정책 비전과 계획의 시사점

- 「문화비전 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사람 중심을 문화(정책) 영역에 접목시킨 것이며, 3대 가치(자율성, 다양성, 창의성)는 「문화기본법」의 이념을 계승한 것임.

■ 개인 중시(기존 국가주의를 넘어서), 예술인 복지, 성평등문화, 문화다양성, 공정한 문화생태계, 지역 문화분권, 문화자원 융합에 따른 경제적 가치,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문화를 통한 사회혁신 등 9개 의제는 문화(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이전의 비전서(계획서)와 다른 점은 개인, 성평등문화, 문화다양성, 공정한 생태계를 의제로 설정한 것임.
- 개인(사람)과 공정은 현 정부의 정책기초이며, 성평등문화는 미투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를, 문화다양성은 혐오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임.
- 예술인 복지, 지역 문화분권, 문화융합과 경제가치, 남북 및 국제 문화협력, 문화를 통한 사회혁신 등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임.
- 특히 지역 문화의 중요성은 이전 정부에서도 충분히 강조되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국정기조와 맥락을 같이하여 지역 문화분권을 제도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름.

■ 사람이 있는 문화정책¹⁰⁾은 문화 분야의 다른 중장기계획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됨.

-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문학진흥계획: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
-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미술로 행복한 삶
- 박물관·미술관 중장기계획: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 공정성은 현 정부의 기초¹¹⁾와 연계되며, 「문화비전 2030」¹²⁾과 「새 예술정책」¹³⁾에서 보듯이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구체화됨.

■ 성평등문화는 미투운동에서 드러난 예술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실현으로 「문화비전 2030」(성평등의 문화실현), 「새 예술정책」(예술표현 자유와 예술인 인권: 예술계 성평등)으로 구체화되는데, 앞서 언급한 공정과 맥락을 같이함.

■ 문화다양성은 「문화비전 2030」¹⁴⁾에서 강조되는데, 이는 블랙리스트사태에서 비롯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방향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다양성이 문화정책의 핵심 영역임을 강조하는 것이 현 정부 문화정책의 특징임.

10) 개인과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 발전주의 및 국가주의를 넘어서 문화정책

11)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12) 예술다양성, 창작활동 공정대가체계,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문화콘텐츠 유통 및 노동 불공정 개선, 공정한 스포츠 문화, 공정상생의 관광산업

13)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14)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강화 및 법제 정비, 혐오표현 금지와 인식제고, 다양한 표현 보장, 언어문화 다양성, 전통문화 보호와 현대화, 문화다양성 기반 관광정책

- 지역 문화분권은 「문화비전 2030」¹⁵⁾과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지역기반 생태계 구축)에서 가장 잘 드러난.
 - 특히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중앙 중심의 교육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한 것임.
 - 이는 문화정책이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의 문화화, 문화의 일상화를 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줌.
 - 이전에도 생활문화를 강조했지만(1차 지역문화진흥계획), 현 정부에서는 생활SOC 조성에서 보듯이 지역과 생활의 일상문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
- 또한 현 정부의 문화정책을 이전 정부 정책과 비교하면 미래가치를 더욱 강조하는데 있음.
 - 「문화비전 2030」의 문화와 신기술-지식 융합, 「새 예술정책」의 진화하는 기술의 예술 분야 활용 등이 여기에 포함됨.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기술-예술-문화의 공존을 위한 시도임.
- 따라서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사람-공정-성평등-다양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문화 분권의 제도화, 일상의 문화,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등을 강조하고 있음.

15) 지역문화자치 기반조성, 지역문화 고유성 유지·발전, 지역문화 거점기관 혁신, 문화협치,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활체육 활성화

3.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방향과 정부 문화정책의 조응

3-1. 지역 문화분권

-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정책 환경은 지역 문화분권 추진에 있음.
-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 지방에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는 4,036억원 정도임.
- 2020년 균특회계(제주계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약 13,288백만원임.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280백만원, 지역문화컨설팅 30백만원, 기초관광자원 개발 2,287백만원, 체육진흥시설지원 9,691백만원 등임.
 - 위 예산은 전년대비 52.3% 감소한 것인데, 이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상당수가 지방에 이양되었기 때문임.

<표 3-8> 2020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주계정

(단위: 백만원, %)

	2018 결산	2019예산		2020 예산안		증감	
		본예산	추경 a	요구	조정 b	b-a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계	17,894	27,857	27,857	13,288	13,288	▲14,569	▲52.3
1253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1,000	1,600	1,600	-	-	▲1,600	순감
1553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893	6,379	6,379	1,280	1,280	▲5,099	▲79.9
1554 지역문화컨설팅	21	20	20	30	30	10	50.0
4154 기초관광자원 개발	10,000	19,018	19,018	2,287	2,287	▲16,731	▲88.0
관광자원개발 4154-300	8,800	16,611	16,611	-	-	▲16,611	순감
제주관광진흥지원 4154-302	1,200	2,407	2,407	2,287	2,287	▲120	▲5.0
5153 체육진흥시설 지원	1,980	840	840	9,691	9,691	8,821	1,053.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0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3권: 일반회계 7100프로그램, 지특회계·균특회계』, 571~572쪽.

■ 2020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예산은 1,28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0% 감소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결과임.

<표 3-9> 2020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제주계정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a	2020년 b	b-a	(b-a)÷a×100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	680	680	
생활문화센터 조성	-	-	600	600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1,124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854	854	-	▲854	
전통사찰 보수정비	232	232	-	▲232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680	680	-	▲680	
작은도서관 조성	100	-	-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791	789	-	▲789	
문예회관 건립 지원	1,500	-	-	-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100	800	-	▲800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	1,000	-	▲1,000	
계	4,893	6,379*	1,280	▲5,099	▲80%
지자체 경상보조	2,325	2,323	-	▲2,323	
지자체 자본보조	2,568	4,056	1,280	▲2,776	▲68%

※ 2019년 합계가 6,379백만원인데, 사업별 예산을 합하면 5,479백만원임. 사업예산에서 900백만원의 착오가 있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0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3권: 일반회계 7100프로그램, 지특회계·균특회계』, 601쪽

■ 2020년 지역문화컨설팅 예산은 3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함.

<표 3-10> 2020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제주계정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a	2020년 b	b-a	(b-a)÷a×100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21	20	30	10	50%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21	20	30	10	5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3권: 일반회계 7100프로그램, 지특회계·균특회계』, 607쪽

■ 2020년 제주관광지원 예산은 2,28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함.

－ 관광자원개발(2019년 16,611백만원) 역시 지방에 이양됨.

<표 3-11> 2020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제주관광 지원): 제주계정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a	2020년 b	b-a	(b-a)÷a×100
제주 MICE다목적 복합시설	－	1,907	2,287	380	19.9%
제주 별빛누리공원 인프라 개선	1,200	500	－	▲500	
계	1,200	2,407	2,287	▲120	▲5.0%
지자체 자본보조	1,200	2,407	2,287	▲120	▲5.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3권: 일반회계 7100프로그램, 지특회계·균특회계』, 700쪽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예산(2019년 5,099백만원), 관광자원개발(2019년 16,611백만원) 등 21,710백만원이 제주계정에서 지방 이양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210억원의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예산뿐만 아니라 제주 문화예술의 섬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시대, 제주 문화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함.

■ 특히 국정과제 77번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에 주목하여 문화진흥 계획을 설정해야 함(관광교통, 문화를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 단위가 특별자치도이면서 동시에 하위단위(시·군, 읍·면·동, 마을)라고 전제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중앙에서 지방으로 문화정책 단위의 이양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내에서 정책단위의 이양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체감도는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

－ 국정과제에서도 제주 고유의 분권모델 형성이 제시되었으므로, 분권의 분권까지 포괄해야 함.

3-2. 문화다양성 정책

- (문화)다양성은 「문화비전 2030」에서 3대 가치(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가운데 하나이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문화비전 2030」에서 다양성은 공동체의 다양성으로 표현되지만, 다양성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표현에서 비롯된다면 제주 도민 개개인은 물론 제주도 내 다양한 집단과 제주도 전체를 나타내는 정체성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
 - 제주도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에 따른 제주의 정체성은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다양성 측면에서 더욱 보존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제주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이 오랫동안 제주에 거주해 온 제주 도민의 문화적 욕구와 어떻게 융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주 이외 지역과 구분되는 제주도 내 문화다양성 실현이 무엇보다 요구됨.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공간 압축에 따라 마을 문화의 고유성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마을단위 문화정체성 찾기가 필요함.
- 이와 같이 정체성의 계승·지속이 타자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수의 정체성이 만나는 과정에서 혁신이 발생할 수 있음.

3-3. 제주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생태계

- 국정과제 69번(‘공정한 문화산업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화비전 2030」의 9대 의제 가운데 다섯 번째인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분야 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공정성에 있음.
- 공정성 확보는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나, 제주 특별자치도는 문화(전문)인력의 부족과 이주 예술가, 이주 인구의 증가 현실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효율성과 공정성의 조화를 위한 노력(기존 제주지역 문화예술계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이주민과 관광객뿐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제주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실현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 분야 생태계는 공정성 못지않게, 예술-콘텐츠-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문화비전 2030」의 9대 의제 가운데 일곱 번째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에는 문화 자원과 관련산업 연계, 신기술과 문화자원 융합 등이 포함되지만, 문화예술-콘텐츠-관광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많지 않음.

- 관광의 경우에는 ④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내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 정책 마련’, ⑤ 지역 문화분권 실현 내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⑧ 관광산업의 공정 상생을 위한 지원 내에서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정도가 포함됨.
- 문화예술-콘텐츠산업-관광은 하나의 체계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를 구성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에 구체적으로 조응할 필요가 있음.
- 개별(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생태계 혁신에 더하여 연계체계의 혁신이 이뤄질 때, 제주를 포괄하는 하나의 문화정체성이 생성될 수 있음.

3-4. 사람이 있는 제주 문화

-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제되지 않는 ‘개인’의 자율적 문화 또는 문화적 자율성을 의미함.
- 따라서 제주 도민이면 누구나(연령, 성,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서나(제주의 도심이나 농어촌이나) 문화로 자신을 표현하고(문화정체성), 문화로 즐거운 삶이 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삶의 전제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화예술에 대한 일정한 욕구, 문화예술 참여공간(시간), 현재 제주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은 주52시간제로 실현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자원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토대로 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창출(문화예술교육)과 정부의 생활SOC 정책에 발맞춰 생활권 내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IV.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 현황 및 추진과제

1. 제주 문화정책 환경¹⁶⁾

1-1. 제주사회의 환경 변화

- 인구가동에 따른 문화생태계의 변화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존재함. 이주민들로 유입되는 문화를 새롭게 접하면서 문화생산과 향유 기회가 다양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검증되지 않은 문화가 확산될 경우 지역의 문화 고유성과 충돌할 수도 있음.
- 제주 이주민 중에는 이주 목적과 현실 적응 과정에서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이 자신의 목적만을 의식하면서 활동하게 되면 제주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사람들이 이동할 때 예술 인력도 함께 이주하면서 새로운 예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인구 이동은 예술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이에 제주 거주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예술가와 향유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또한 제주 도민들이 문화예술의 일상화와 일상생활의 문화예술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역·계층·세대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
- 제주 이주민들의 증가에 따라 제주 도민과 교류할 때 지역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하고, 예술가들 간에도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이주민과 외국인 주민(국적 취득자, 미취득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16) 문순덕(2019), 「제주 예술 10년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 제3권』 361~376쪽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2019), 『문화정책 위킹그룹 보고서』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1-2. 제주도정의 각종 계획에 문화정책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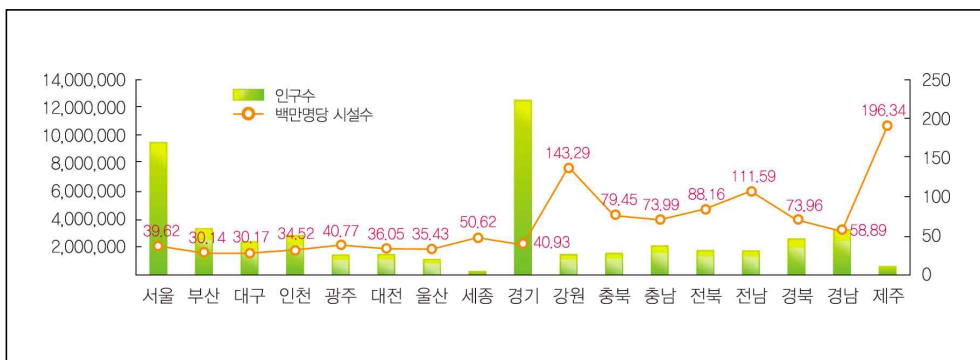
- 민선 6기인 2014년에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문화예술정책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존의 정책을 아우르며, 제주에 예술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역점을 두었음.
- 정부의 문화정책 지원 제도를 보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2013), 「문화기본법」(201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 「지역문화진흥법」(2014) 제정 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내용은 문화예술 분야만 독립적으로 수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제주광역시도시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07)에 제시된 실천전략은 국제적 규모의 문화·공연·전시시설 건립, 종합 도서관 건립, 가칭 제주문화산업진흥센터 신설, 가칭 제주해양문화박물관 신설 등임.
-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제주발전연구원, 2009)에 따르면 문화 분야 추진과제로 ‘선진 문화·예술 기반 조성, 제주문화 자원화, 제주 문화 글로벌화’ 등이 반영되었음.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년)』(제주특별자치도, 2011)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 추진과제로 ‘제주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창조적 활용, 문화예술 진흥과 국제교류 활성화·문화예술을 통한 나눔과 배움문화 확산,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문화자원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이 선정됨.
-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13~2022년)』(제주특별자치도, 2013)에 따르면 문화시설과 재정의 확충, 전문가 인력 양성 등에 역점을 두었음.
- 『제주미래비전』(제주특별자치도, 2016)에 따르면 문화 부문의 추진전략으로는 ‘문화로 행복한 제주 만들기’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천 전략으로는 ‘제주의 문화 정체성 강화, 제주의 문화생태계 강화, 제주문화의 영향력 확대’ 등이 선정되었음. ‘청정과 공존’은 현재도 유효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도시 기본조례,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65건이 제정됨.

- 제주의 문화정책 관련 중장기계획들이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실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중장기계획 간에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별개의 계획별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문화정책관련 계획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계획의 실행 여부와 예술 환경의 긍정적 변화 등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함.

1-3. 문화예술생태계의 변화

- 정부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고, 2013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시설 수를 확대하여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음.
-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지역별 인구 백만 명 당 시설 수를 보면(<그림 4-1>), 제주특별자치도가 19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강원도 143개, 전라남도 111개 순으로 나타남. 이 자료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으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40개, 지방 67개 등으로 지역별 인구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

<그림 4-1>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쪽.

- 단순히 문화시설 보유 수로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즉 문화시설의 종류, 위치, 지역민들의 선호도 등에 따라 만족도가 다를 수 있음.
- 한편 문화기반시설 간 편차가 심한 편인데,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64%가 박물관과 미술관에 편중되어 있고, 이 중에 관광형 시설이 많은 편임.
- 문화기반시설은 확충도 중요하지만 문화 수요에 기반한 시설의 활용이 더욱 중요하므로, 실수요자에 대한 이해와 창작 활동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2017 콘텐츠산업통계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7)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전국 최하위(126개, 1.0%) 수준임. 한편 종사자 수 대비 매출액 비중이 유사하거나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지역 등임. 이 조사 결과 제주지역은 콘텐츠산업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문화원형을 활용한 실용화 작업은 다양한 소재로 넓혀가고 있으나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통 방안이 미흡해 보임.
- 『제주문화지표』(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2017)에 따르면 문화 활동과 관련된 도민 의식은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 활동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함.
 - － 문화예술 활동 비중이 낮은 편 응답이 35.8%, 매우 낮음이 22.1%로 조사됨.
-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은 기타 복합장르가 4.1%로 가장 높고, 다음은 미술 1.5%, 서양음악과 전통예술이 각 1.0% 순으로 나타남. 동호회 활동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2.8%가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응답함.
- 문화예술 향유 기회는 동지역(도심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농어촌 등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제주 도민의 여가생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문화분야 예산은 2013년 이후 2%대에 머물렀으며, 2018년 이후 3%대로 진입하였음.
 -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분야 예산 지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행사, 문화바우처, 문화기반시설(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으로 구성됨.

<표 4-1> 2018년 주요 지표(목표) : 문화 분야

지 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이후
•문화예산		억원 (%)	969 (2.87)	773 (2.15)	957 (2.50)	1,084 (2.64)	1,273 (2.86)	1,613 (3.22)	2,000 (3.9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수			31,701	36,870	40,500	43,000	46,000
•문화예술 행사		회			4,353	4,453	4,781	4,924	5,071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인원		명			20,528	21,340	22,260	22,927	23,614
•문화기반시설	시설 수	개소	135	146	142	141	138	141	141
	이용자 수	명	29,145,460	25,334,654	23,151,079	25,280,602	22,251,263	25,100,000	25,700,000
공공도서관	시설 수	개소	21	21	21	21	22	22	22
	이용자 수	명	3,061,004	2,968,696	2,969,721	2,899,445	3,000,000	3,000,000	3,000,000
박물관	시설 수	개소	63	62	63	61	60	62	62
	이용자 수	명	19,820,815	15,462,944	14,339,144	16,361,046	13,906,889	16,300,000	16,500,000
미술관	시설 수	개소	18	19	19	20	19	20	20
	이용자 수	명	2,743,336	2,779,740	2,499,631	2,741,693	2,330,439	2,700,000	3,000,000
공연장	시설 수	개소	28	39	34	34	32	32	32
	이용자 수	명	1,680,008	2,085,924	1,168,374	1,051,536	842,000	900,000	1,000,000
영화관	시설 수	개소	5	5	5	5	5	5	5
	이용자 수	명	1,840,297	2,037,350	2,174,209	2,226,882	2,171,935	2,200,000	2,200,00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의협력국(2018), 「2018 문화체육대의협력국 주요 업무보고」.

2. 민선 6기 문화정책 추진 결과

2-1. 개요

- 이 항에서는 민선 6기(2014~2018) 제주도정의 문화정책 추진 현황¹⁷⁾을 분석하여 민선 7기 문화정책 방향의 근간으로 삼고자 함.
 - 민선 6기 시작해인 2014년 하반기와 마무리 해인 2018년 상반기 추진 실적은 당해 연도 사업의 연장이므로, 여기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
- 민선 6기 문화 분야 추진 현황¹⁸⁾은 다음과 같음.
- 민선 6기 제주 도정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문화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으며,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음.
- 6대 전략과제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주 문화브랜드 세계화,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문화예술의 활성화 기반 조성, 제주의 독특한 문화 발굴 육성, 종교문화 가치 발굴 및 활용 등이며 연도별로 세부과제가 추진됨.
 - 6대 전략과제는 연도별로 일부 변동이 있으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4년 간 같다고 볼 수 있음.

<표 4-2> 민선 6기 문화정책 분야 추진 실적

핵심전략	전략과제	주요 사업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과제 반영
문화예술의 섬 조성	1.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순수 문화예술인 대상 보조를 폐지 ·다양한 계층 대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반영
	2. 제주 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관악제와 합창제 등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 개최 ·UCLG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교류 확대	반영
	3.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영화산업 육성 ·원도심 활성화	반영

17) 민선 6기(2014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제주도정의 문화정책 추진 실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18) 민선 6기 문화 분야 추진 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내부 자료인 「민선 6기 3년 도정 성과 분석」(2017년 6월 14일)과 「민선 6기 주요 정책평가 및 핵심과제」(2018년 1월)에 기초하여 작성함.

핵심전략	전략과제	주요 사업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과제 반영
	4.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	·술동산 및 삼성혈 문화의 거리 조성 완료 ·제주도립 김창렬미술관 개관	반영
	5. 제주의 독특한 문화 발굴 육성	·제주어 보전 및 확산을 위한 채록사업 추진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반영
	6. 종교문화 가치 발굴 및 활용	·전통 종교문화 원형 보존 및 인프라 구축 ·종교 성지순례길 조성	반영
	7.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협치 시스템 구축	·문화예산 확대 ·문화협치 시스템 구축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반영

2-2. 추진 실적

■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과제별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음.

2-2-1.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① 순수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보조율을 폐지하고, 창작지원 확대에 역점

■ 보조율을 보면 2014년 50%~90%를 지원하였고, 2016년 90%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100% 전액 지원함.

■ 보조금 지원액은 2014년 1,994백만원에서 2016년 2,774백만원, 2017년에는 3,034백만원으로 증가함.

■ 개인 예술가 및 우수 예술가 지원을 확대하여 2016년까지는 격년제로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는 매년 지원하는 제도로 바뀜.

②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 창작 융자 지원제도 도입(2017. 9.)

■ 이 제도는 전문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창작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임.

- 이 사업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③ 청년 유망예술가 육성과 매개인력 양성을 통한 제주 예술 성장 기반 마련

- 청년 예술 창작 활동비를 최초로 지원하고, 문화기획 전문인력 21명을 양성함.

④ 창의적·실험적인 전시 작가의 발표기회 확대를 통해 창작 활동 활성화 확대

- 아트큐브 공간 여행 사업은 2동, 5개소에 미술작가 5명이 참여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사를 아트갤러리로 운영하여 8회 전시함.

⑤ 소외계층 없이 다양한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산 사업 추진

- 청소년, 일반인, 장애인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7개 분야).
- 생활예술 동호회 전문강사 활동지원 지원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11개 단체에 31백만원이 투입됨.
-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은 2016년 24개 단체 80백만원에서 2017년 39개 단체 127백만원이 투입됨. 또한 2017년 3개 분야에서 2018년 7개 분야로 확대하여 800백만원이 투입됨.
- 일반단체, 외국인 등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시책사업을 발굴·지원함(2016. 1. 시행, 24개 사업).
- 이주 예술가와 지역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
- 생애주기별 다양한 계층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여 6개 분야 1,892만원을 지원함.

⑥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예술 강사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기반 마련

- 2015년 87개교에 42명, 2016년 90개교에 45명, 2017년 80개교에 45명 등이 활동함.

⑦ 문화재생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 확충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 김판덕객주(2015. 9. 개관), 예술공간 ‘이야’(2017. 5. 13. 개관), 산지천갤러리(2017. 12. 8. 개관) 등 문화공간이 확충됨.
-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공동체 모델 구축을 통해 공공미술 설치 등 이웃골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함.

⑧ 문화복지 정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확대 및 문화가 있는 날 지정 기관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은 2016년 21,201명 대상 1,20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 23,876명 대상 1,468백만원이 지원됨.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시설은 2014년 54개에서 2017년 90개로 확대되었으며, 공공 문화시설에서 사립 문화시설로 참가 범위가 확장됨.

2-2-2. 제주 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① 제주국제관악제와 국제합창제, 탐라문화제 등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제주 문화의 세계 인지도 확대에 기여

- 제주국제관악제는 2014년에는 22개국 3,400명, 2015년에는 20개국 2,170명, 2016년에는 23개국 2,605명, 2017년에는 20개국 3,564명 등이 참가하였음.
- 제주국제합창제를 부활하여 제주 문화의 홍보 및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
이 축제는 2008년~2009년 2회 개최된 후 중단되었다가 2017년에 부활하였음.
- 2017년(2월 20일~23일) 4개국 73팀에 580명이 참가함.
- 탐라문화제를 글로벌 제주대표 축제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2016년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주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었음. 또한 해외로 찾아가는(2017년 6월 일본 오사카 방문) 탐라문화제도 개최하고 있음.
- 탐라문화제는 2015년에는 5개국, 7개 팀이 참가하였고, 2017년에는 6개국, 10개 팀이 참가함.

② 제주포럼 「문화세션」 신설 운영 및 ‘제주문화선언문’ 발표(2015. 5.)

③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¹⁹⁾ 한국의 대표도시로 선정된 이후 매년 문화교류 행사 추진

- 동아시아 문화도시(12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문화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19)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2012년 5월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14년부터 매년 국가별로 1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한중일 상호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면서 사용된 용어임.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과정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거침.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지역은 2014년 한국 광주,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임. 2015년에는 한국 청주, 중국 칭다오, 일본 니카타시가 선정되었고, 2016년에는 한국 제주, 중국 저장성 링보시, 일본 나라현 나라시 등임. 2017년에는 한국 대구, 중국 창사, 일본 교토 등이 선정됨. 2018년에는 한국 부산, 중국 하얼빈, 일본 가나자와시 등이 선정됨. 2019년에는 한국 인천시, 중국 시안시,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 등이 선정됨.

④ UCLG 문화선도도시 선정 및 네트워크 활동 강화로 제주 문화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

⑤ 제2회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기반 조성 토대 마련

■ 이 행사는 제주시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2017년 5월 10일~5월 13일(4일간) 개최되었으며, 세계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문화전문가·예술인 등 66개국 1천여 명이 참여함.

■ 또한 ‘글로벌 세계 청년 문화포럼’을 창설하여 2018년부터 매년 제주지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⑥ 글로벌 문화네트워킹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확대 사업 지속 추진

■ 2018년에는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3회), 문화교류사업(12회), 제주 국제문화역량강화사업(2회) 등이 추진됨.

2-2-3.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① 제주지역의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제주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2015. 12.) 제주 지역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함.

■ <(가칭)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기관 설립 심의 완료(행정자치부, 2017. 5.) 이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2018. 3. 5. 설립)됨으로써 비로소 제주지역에도 문화콘텐츠산업 전담 조직이 설립됨.

② 제주 자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케이션 유치, 영화산업 육성 정책 추진

■ 제주 로케이션 유치는 2014년 51건(760백만원), 2015년 71건(2,584백만원), 2016년 82건(3,569백만원), 2017년 85건 등이 이루어짐.

－ 영화문화예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영상산업 발전 기회를 제공함.

■ 다양성(독립)영화 제작 지원 및 영상문화공모사업 등의 지원 실적으로는 2014년 19개 사업, 2015년 18개 사업, 2016년 20개 사업, 2017년 25개 사업 등이 있음.

③ 전국 최초 사립 박물관·미술관 평가 인증제 시행

■ 평가 인증제 시행 결과 2016년 22개소가 인증됨.

④ 문화원형 종합기록화 사업 추진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소재 발굴 및 제공 기회 확대

■ 제주 설화(신화, 전설, 민담) 등 문화원형 종합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2016~2019)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사용자의 이용 기회를 확대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설화를 조사하여 온라인상에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
- 제주연구원 블로그 '제주문화원형 설화연구소'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음.

⑤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교육 및 창작 지원사업 추진

■ 지역스토리랩 프로그램으로 스토리 소재 등 46건 발굴, 콘텐츠 개발 3건이 있음.

■ 기업 역량강화 교육(집체 및 방문교육 등) 20회, 법률자문 42건이 있음.

⑥ 문화콘텐츠 활용 상품화 및 유통과 향유 지원사업 추진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문화 창작품 홍보 마케팅,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 있음.

⑦ 청년창업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청년 창업지원과 네트워킹 등을 추진하여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8개 사업을 신규 창업으로 지원하였는데, 2017년 우수 창업자 대상 '창업기업성장지원' 사업은 3건이 해당됨(건당 3백만원).

■ 창업 분야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 문화기획 등 11개 분야임.

■ 2018년에는 창업실패 사례 분석 및 재도전 지원사업으로 2건이 있음(건당 15백만원).

⑧ 제주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아트토이 기반 융복합 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

2-2-4.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

①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확대에 기여

■ 서귀포시는 2015년, 제주시는 2016년에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등 5년간 72억을 지원받음.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조성 사업의 예비단계에 해당됨.

■ 서귀포시는 2018년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되었고, 제주시는 2019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기본계획을 제출한 상태임(2019. 11.).

② 서귀포 솔동산 문화의 거리 및 삼성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완료

■ 도로 정비, 조형물 설치, 소공원 조성 등이 2015년 2월에 완료됨.

③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개관 및 운영

■ 김창열미술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4일 개관됨(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내).

－ 김창열 화백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작품 220점을 기증함.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사의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독서문화 환경 기반 확대

■ 이 도서관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시설물 보관을 거쳐 ‘제주꿈바당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함(2017. 10. 14.).

⑤ 공공미술관의 수장고 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공공수장고 조성 사업 추진

■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848백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의 공공수장고를 건립함(2019. 2.).

－ 공공수장고의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이며 전문수장고(미술작품 1,500점 수장 가능), 부대시설, 전시 등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함.

⑥ 제주지역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인 ‘제주문학관’ 건립 기반 마련

■ 제주문학관은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2018. 12. 실시설계 계약).

－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전시실, 연구실, 강의실 등을 배치할 예정임.

⑦ 지역 예술가들의 숙원 사업인 창작공간 조성

■ 구)산양초등학교를 창작공간으로 조성(2019. 12. 예정)함.

－ 이 창작공간은 전시실 4개, 스튜디오 2개, 레지던시 7실, 카페 1개 등으로 구성됨.

■ 저지문화지구 영상스튜디오는 실내로 조성할 예정임(2018. 7.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⑧ 예술인 생애(활동)주기 맞춤형 예술 창작여건 조성을 통한 문화복지 강화 확대

- 생애주기별·성장단계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및 신생 공연예술단체(공간) 지원 확대, 제주 예술가 아카이브 구축 등이 추진됨.

2-2-5. 제주의 독특한 문화 발굴 육성

① 제주 문화의 가치 보전과 육성을 위해 제주어 활성화 및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에 역점

- 제주어 보전 및 확산을 위한 구술채록 사업을 추진함.
 - 2014년부터 2016년(3개년),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중심으로 제주학 아카이브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② 제주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제주어 교육과정 운영

- 제주지역 5개 방송사에서 7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함.
- 제주어 기초 및 전문과정을 5개 운영함.

2-2-6. 종교문화 가치 발굴 및 활용

① 종교 전통문화의 계승 및 전통사찰 보존 정비 등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 전통사찰 보수 정비는 7개소에 1,721백만원이 지원됨.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는 7개소에 726백만원이 지원됨.
-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및 편의시설 보수는 5개소에 537백만원이 지원됨.

② 종교 성지순례길을 조성하여 종교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 제공

- 제주지역에 있는 종교 성지순례길 5개 코스(120.3km)를 조성하였음.
 - 불교 2개 코스(84.6km)
 - 천주교 3개 코스(35.7km)
 - 기독교 성지순례길은 2013년까지 조성 완료됨.

③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기반 조성

- 이 센터는 2018년 1월~2020년 12월 완료 예정임.

2-2-7.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협치 시스템 구축

- ①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슬로건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예산 확대
- 2018년까지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 대비 3% 확보를 목표로 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함.
 - 2014년 2.19%(785억원), 2015년 2.50%(957억원), 2018년 3.22%(1,620억원)로 증가함.
 - 2017년도 정부 문화재정 비율은 1.72%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 예산 평균은 1.69%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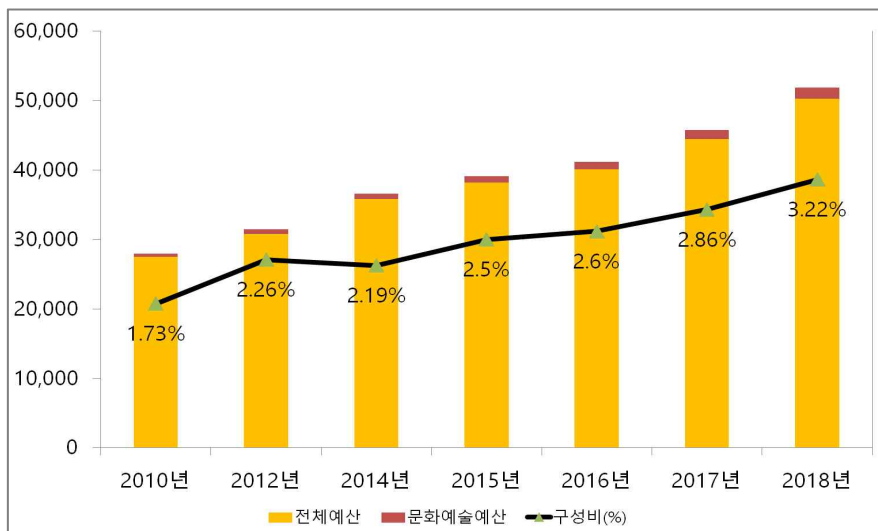
<표 4-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보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예산	27,498	30,763	35,824	38,194	40,128	44,493	50,297
문화예술 예산	476	696	785	957	1,065	1,273	1,613
전체예산대비 구성비(%)	1.73	2.26	2.19	2.50	2.60	2.86	3.2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8),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내부자료」.

<그림 4-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보 추이



② 문화협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운영 강화

- 문화예술인 인력풀 구성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고, 각종 정책협의회를 운영함.

③ 제주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 ‘제주人놀다’ 구축 및 운영(2016. 6. 구축)

- 문화예술관련 자료 3,016건(시설 228, 행사 2,607, 예술인·단체 181)이 DB로 구축됨.
 - 문화예술 행사 정보 실시간 등록 및 공유 기회를 제공함.

④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40개소) 상호 협력망 구축 및 운영(2017. 6. 구축).

- 건전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지원 강화 사업으로 점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추진함.

⑤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메세나협회’ 창립 및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선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2015~2017).

- 메세나회원 기업은 95개이고, 111개 기업에 106개 단체를 연결해 줌.
 - ‘제주메세나협회’는 2015년 12월 창립, 2016년 1월 6일 설립됨.

⑥ 문화생태계 구축 관련 실태와 문화지표 조사

- 제주 문화정책의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문화생태계 지도 구축 조사와 문화지표 조사를 실시함(2015~2017).
 - 실태조사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에 반영함.

2-3. 민선 6기 문화정책 추진 결과

- 민선 6기(2014~2018) 문화정책 추진 결과 문화시설 지원, 문화향유 지원, 맞춤형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지원 분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시설 지원 분야 사업에는 ‘예술공간 이야’ 개관, 서귀포시와 제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등이 있음.
- 문화향유 지원 분야에는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문화예술 축제, 국제합창제, 원도심 중심의 다양한 예술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시장(프리마켓) 운영 확대’ 등이 있음. 이 사업들을 통해 제주 도민들은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았음.

- 맞춤형 문화복지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제주사랑티켓,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일반적인 사업 추진 이외에도 이동식 야외 전시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였음.
- 전문인력 양성 지원 분야는 문화콘텐츠 기획 인력 양성이 있음.

<표 4-4> 민선 6기 문화정책 추진 내용

유형	주요 사업 내용
문화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공간 이아 조성 사업 추진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건립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공연·전수회관 건립 ·솔동산 및 삼성혈 문화의 거리 조성 ·김만덕 객주터 재현 사업 추진 ·생활문화센터(3개소), 작은도서관(1개소), 공관어린이도서관 개관 ·도서관 기능 강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문화향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예술문화 활동 지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한일음악합창제 등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페스티벌 개최 운영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문화축제 운영 방법 개선 ·문화시장(프리마켓) 확대, 문화콘텐츠 홍보 및 전시 등 문화 향유 지원 ·제주아트페스티벌 확대 개최
맞춤형 문화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식 야외 전시공간(아트큐브) 설치·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제주사랑티켓 사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콘텐츠 기획 ·창작기회 제공 등 도민 역량 강화 문화 창작 지원

3. 민선 7기 문화정책 추진 현황

3-1. 개요

- 민선 7기(2018~2022) 제주도정의 문화정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²⁰⁾
 - 민선 7기 시작 해인 2018년 하반기 실적은 민선 6기 실적에 반영하였고, 여기서는 본격적인 민선 7기 시작 해인 2019년 추진 실적을 살펴보고자 함.
-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21개소, 박물관 60개소, 미술관 20개소, 공연시설 37개소, 문화의집 17개소, 문화원 3개소, 작은도서관 177개소 등 총 335개소임.

<표 4-5> 문화기반시설 현황(2019. 9. 30.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작은도서관
335	21	60	20	37	17	3	177

- 제주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면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원단체 12개,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원단체 8개, 법인 150개, 기타 388개 등 총 558개가 있음.
 - 기타 문화예술단체에는 건축 2, 문화일반 22, 도립 5, 무용 17, 문학 38, 미술 52, 사진 36, 서예 35, 연극 16, 영상 4, 음악 115, 전통예술 46 등이 포함됨.

<표 4-6> 문화예술단체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원단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원단체	법 인	기 타
558	12	8	150	388

* 기타 : 건축 2, 문화일반 22, 도립 5, 무용 17, 문학 38, 미술 52, 사진 36, 서예 35, 연극 16, 영상 4, 음악 115, 전통예술 46

20)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의협력국(2019. 10.), 「2019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 근거하여 작성함.

- 문화정책 분야 예산은 2018년 1,613억원(3.2%)에서 2019년 1,639억원(3.1%)로 0.1% 감소함.
- 민선 7기 시작 해인 2019년 문화정책 목표는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행복 시대”로 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제는 ‘문화가 숨 쉬는 제주’로 정함.
- 전략과제에 따른 실행계획은 ‘제주의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부흥,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산업 육성,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종교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 지역과 상생하는 김창열미술관 운영’ 등 5개가 있음.

전략과제	실행계획
문화가 숨 쉬는 제주	1. 제주의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 부흥 2.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산업 육성 3.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4. 종교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 5. 지역과 상생하는 김창열미술관 운영

3-2. 2019년 문화정책 실행계획 추진 결과

3-2-1. 제주의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 부흥

① 제주 문화의 정체성 연구와 전승 추진

-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추진을 준비함.
- 제주어 사용 확산을 통한 제주어 보존·전승 사업을 추진함.
- 제주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함.

② 도민 모두에게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의 섬 제주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 체계를 마련함.
-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

③ 유희공간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기반 구축 강화

-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역의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향유 프로그램 활성화를 확대함.

- 우도담수화센터와 공공기관 보유 공간 등 민간과 공공의 유희공간을 조사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함.
- 생활SOC사업 기능의 복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체육관 + 도서관 + 생활문화센터 등을 집적화하는 것임.
- 일자리 연계형 문화공간 학예인턴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26명에서 2020년에는 3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④ 제주 문화의 글로벌화 추진

- 탐라문화제에 예술단의 참가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을 통한 예술 교류 활성화를 추진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UCLG 문화분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제주 문화 공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3-2-2.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산업 육성

① 제주 특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사업 추진

-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하여 7건에 180백만원을 지원함.
- 제주 설화 등 문화원형 종합 기록화사업을 추진하여 110편에 100백만원을 지원함.
- 특성화고 연계 인력 양성과 미디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7개 분야에 300백만원을 지원함.
- 콘텐츠관련 박람회 참가 등 문화 창작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14건에 90백만원을 지원함.

② 중앙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新사업 인프라 확충 및 산업 기반 구축

- 콘텐츠코리아랩(20억원), 음악창작소(22억원), 웹툰캠퍼스(8억원) 등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유치함.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100억원), 실내 영상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있음(120억원).

③ ACA센터(Asia CGI Animation 센터;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와 지역민 간에 네트워크 강화 및 공간 활성화

■ 지역 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 공연, 체험, 견학, 애니메이션 상영 등 112회에 4,835명이 참여함.

■ 스타트업 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웹툰캠퍼스 등 16개 과정에 352명 대상 교육이 진행됨.

④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영상산업 육성 및 생활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으로 72작품에 170백만원을 지원함.

■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으로 10편에 360백만원을 지원함.

■ 영화제 등 영상문화 육성사업은 4건에 180백만원이 지원됨.

■ 찾아가는 밤마실 극장사업은 29건에 4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도민 향유 활성화 사업은 277건에 180백만원이 지원됨.

3-3-3. 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① 지역 전문예술인 맞춤형 지원 방법 개선 및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문화예술인 성장단계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창작지원으로 10개 분야, 297개 사업에 2,436백만원을 지원함.

■ 청년 유망 예술가 창작 발표와 문화기획은 물론 공간지원 사업을 추진함(임대료: 6명에 30백만원 지원).

■ 공연장 상주단체(5개 단체)와 신생 공연예술단체(12건)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함.

■ 문화예술 청년문화사절단(7회), 전문인력 양성지원(입문과정 24명, 심화과정 24명) 사업을 추진함.

②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환경 조성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동아리) 활성화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10건에 134백만원을 지원함.

■ 작고 예술인 생애사와 활동상 등 제주 예술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함.

■ 창작준비금 7건에 139백만원, 대출이자(예술가 창작 용자 지원) 23건에 11백만원, 법률·회계 상담에 57건 등을 지원함.

③ 생애주기·계층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20개 단체, 학교 예술강사는 46명을 지원함.
- (유아·장애인) 영유아·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19개 단체를 지원함.
- (일반도민) 지역특성화교육은 9개 단체, 도민문학학교는 6개 사업, 교육지원센터는 6개 사업을 지원함.
- (청년일자리 창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3개 기관에 3명을 배치함.

④ 생활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활동 지원

- 최초 창립기는 14개 단체, 단체 활성화는 56개 단체, 전문강사는 30개 단체 대상 활동을 지원함.
- ‘제주人놀다’ 지역 생활문화 커뮤니티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함.

⑤ 제주대표 문화예술축제 특성화 지원 강화

- 제주 브랜드화를 위한 공연물 개발 사업을 추진함.
-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 제주예술문화축전 등을 지원하여 제주 문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3-2-4. 종교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

① 종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확대

- 도민 대통합 평화음악회,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종교성지 방문 및 봉사활동, 기로연 재현 행사, 탐라선비 문화학교, 전통문화 보존사업, 부처님 오신 날, 종교합창단 정기 연주회 공모 지원, 등축제 사업 등이 해당됨.
 - 20개 사업에 920백만원이 지원됨.

② 전통사찰의 체계적 보존정비 및 인프라 확충

- 전통사찰 보수정비 3개소, 방재시스템 구축 1개소, 유지보수사업 7개소 등이 해당됨.
 - 3개 사업에 1,740백만원이 지원됨.

③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의 관광자원화

-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 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17개 코스, 313km).
 - 2개 사업에 260백만원이 지원됨.
- 불교 6개 코스(144.4km), 천주교 6개 코스(92.1km), 기독교 5개 코스(76.9km) 등을 조성하는데 지원됨.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보수를 지원함.
 - 약천사, 관음사, 백제사, 금룡사 등 4개의 사찰이 해당됨.

3-2-5. 지역과 상생하는 제주의립김창열미술관 운영 내실화

- ① 김창열 화백의 예술세계 조명과 내실 있는 기획전 개최
- ② 김창열미술관 주관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추진
 - 새봄맞이 음악회, 어린이날 행사,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김창열 아카이브전 전시 연계 체험행사 등이 진행됨.

4.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4-1. 전문가 회의 결과

4-1-1. 개요

- 제주연구원 주최 전문가 의견 수렴

회차	일시	참여자 수	주요 논의 내용
1	2019. 8. 14.	5명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대한 인식 정도 ·도민 참여 중심의 사업 지원 확대 ·예술가의 창작 환경 변화 필요 ·예술생태계의 지속적인 변화 반영 ·문화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도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문화 활동 환경 조성 ·기존 사업 중에 선택과 집중 지원 전략 필요
2	2019. 9. 10.	9명	
3	2019. 10. 14.	8명	
4	2019. 10. 21.	10명	
5	2019. 10. 28.	10명	
6	2019. 11. 11.	11명	
	총 6회	53명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주최 의견 수렴

회차	일시	참여자수	유형	주요 논의 내용
1	2019. 10. 29.	9명	자문	·도민 참여 중심의 사업 지원 확대 ·예술가의 창작 환경 변화 필요 ·예술생태계의 지속적인 변화 반영 ·문화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도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문화 활동 환경 조성 ·기존 사업 중에 선택과 집중 지원 전략 필요
2	2019. 11. 1.	7명	자문	
3	2019. 11. 11.	9명	자문	
4	2019. 9. 25.	50명	토론회 (제주시)	
5	2019. 10. 15.	20명	토론회 (서귀포시)	
6	2019. 11. 1.	50명	도민 원탁회의	
7	2019. 2. 25. ~ 6. 30.	15명	문화정책 워킹그룹	
	전문가 회의: 3회 토론회: 3회			

4-1-2. 주요 내용

① ‘제주 문화예술의 섬’ 추진 관련 실효성 부족

■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반 구축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음.

- 민선 6기에 ‘제주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할 때는 제주를 예술 창조의 섬 이미지로 접근하였고, 국내 이주 예술가들이 증가하면서 제주를 예술 창작의 무대로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음.
- 민선 7기로 넘어오면서 ‘문화예술의 섬, 제주’라는 이미지가 퇴색된 것 같고, 도민들은 문화예술 섬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임.
- 향후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자유로워짐은 물론 도민들도 문화예술을 생활화하고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 제주시 문화도시와 서귀포 문화도시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므로, 결국은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문화예술의 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문화예술의 섬은 단기간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고, 지향점을 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함. 이때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계속 점검하면서 지속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② 도민 친화적인 사업 확대 추진

- 도민 친화적인 예술정책에 역점을 두고 향유자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2016년 문화예술의 섬 조성이 주로 공급자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도민들이 예술을 친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향유할 수 있는 방법에 역점을 두어야 함.
- 문화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생활SOC 복합화 등 국가단위 사업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함.
- 행정과 공공기관이 문화예술 사업을 직접 추진할 경우 민간영역의 활동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행정에서는 지원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 유지가 필요함.

③ 예술생태계의 지속적인 변화 점검 필요

- 문화공간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함. 문화공간이라는 시설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함.
 - 실태조사 항목에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 개인 창작공간 등을 지표화하여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예술생태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를 강화해야 함. ‘제주문화지표조사’는 「제주문화예술진흥조례」에 반영되어 3~5년 단위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창작 여건 개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작 및 매개공간 실태 조사가 필수이므로, 예술가의 창작 여건, 문화공간 운영 방법, 매개 인력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함.
- 예술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문화공간이 충족된 장르는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공간이 부족한 장르에 대해서는 공간 제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함.
 - 제주지역의 예술 장르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는 인력, 예산, 문화공간 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함.
 -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즉 음악과 미술 영역은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 비해 무용이나 연극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④ 제주 문화예술 자원의 아카이빙화 확대

- 제주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민선 7기에는 제주 문화예술 자원의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외국어 지원 서비스 체계도 갖추어야 함.
- 현대는 문화공간 등 시설 건립만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시대임.
- 공공기관별로 아카이브시스템 이용 시 윈스톱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함.
- 제주미술제 홈페이지에는 336명 작가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음.

■ 제주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 ‘제주인놀다’의 지속적·체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제주인놀다’ 시스템 운영 전담인력과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예술가, 문화공간 실태,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이 이 사이트에 축적되면 그 자체로 기초자료가 될 것임.
- ‘제주인놀다’ 시스템 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술가와 기획자, 민간단체들이 자료수집 및 문화예술 홍보 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국외에서 제주의 문화예술과 예술가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와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국제 교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 이에 ‘제주인놀다’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외국인 대상 문화예술 정보제공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야 함.

■ 문화예술계 자료 구축 사업이 필요함.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등 단체 중심으로 제주 문화예술사를 집약한 시각자료를 제작 및 아카이빙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유관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예술 통합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계부터 완성까지 기본 매뉴얼 제작 및 공유가 가능해야 함.

■ 제주 민속자료의 아카이브화 및 정보 이용이 원활해야 함.

- 제주 민속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⑤ 외국인을 위한 문화예술 정보 서비스 확대

■ 제주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정보의 외국어 보강이 필요함.

- 제주 거주 외국인(단기 체류자, 장기 체류자)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하거나 제주 예술가들의 작품을 찾아보려고 할 때 정보의 한계로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 외국인들이 제주 작가들의 작품을 보려고 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상설전시관이 없으므로, 제주 작가의 상설전시관 운영이 필요함.

- 제주의 역사, 문화, 민속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세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번역 지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정보의 접근성 확대 사업이 필요함.
 - 외국인들이 제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도 없고, 자료도 빈약해서 외국인이 제주를 소개한 자료에 의존하는 실정임.
- 제주의 문화예술 공간 소개를 위한 외국어(영어) 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공간의 활동 상황을 외국어로 번역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외국어 지원이 가능도록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⑥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컨트롤타워 운영

-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서귀포 문화도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기존의 기관들이 모여서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함.
- 문화체육대의협력국에 문화예술섬 담당계 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예술의 섬 지향에 필요한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담당조직이 있어야 일정한 목표 수립이 가능함.
- 문화예술인 포럼 운영 정례화를 위해 예술가 간, 예술가와 유관기관, 행정기관과 예술가 등 유형별로 목적에 맞는 회의체 운영이 필요함.
- 장르별로 예술가와 관련기관 간 또는 제주 문화정책 관계자 간의 지속적 교류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해야 함.

⑦ 공공기관의 소장자료 정보 공유의 제도화

- 공공 미술관과 박물관은 각자 수장고에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소장되고 있어서 목록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공공기관 간 소장품 목록을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작품 구입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공공기관 간에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해 보임.
 - 공공 문화공간들의 관습적·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개방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⑧ 문화 매개자의 전문성 강화

■ 문화 매개자 활용을 위한 제도 및 기반이 미흡함.

- 제주지역에는 미술관·박물관 등의 문화공간만 있고, 그와 관련 있는 콘텐츠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시각이 있음.
- 하나의 교육과정이 일자리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려면 산업군이 튼튼해야 하는데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가 많지 않고, 문화 매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상태임.
-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분야 행사를 추진할 때 전문인력(기획자, 예술감독, 무대 전문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외부 인력 의존도가 높은 편임.
- 결국 제주지역의 인재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고, 제주지역에서는 행사만 치르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만 제기되고 있음.

■ 문화 매개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함.

- 문화 매개자 양성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기획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현장 경험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과 예산 등을 확보하고, 수요자 조사를 거친 후 목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 예산을 투입해서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제주지역의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문화 매개자 양성 후 일자리 연계까지 사후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⑨ 제주대표 브랜드는 기존 사업의 지원 확대로 전환

■ 제주대표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행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음.

- 제주국제관악제, 제주4·3예술제, 탐라문화제 등 제주를 핵심요소로 하는 행사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음.
- 예술 분야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하므로, 민간단체와 예술가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기존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재 양성의 기회로 삼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음악 분야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추진하면서 역량이 향상되었고, 미술 분야는 미술제를 통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장르의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도민들의 향유 기회도 확대될 것임.

⑩ 제주 인문학의 대중화 교육 지원 확대

■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함.

- 제주지역에서만 수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노년층과 외국인 등 다양한 향유자 측면을 고려하여 제주 인문학 대중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있어야 함. 현재 외국인 관련 사업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주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제주 역사, 전통문화, 민속 등을 알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대중화 교육이 필요함.

■ 문화 향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문화 매개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민들이 문화 매개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함.

⑪ 문화콘텐츠산업 참여 인구의 저변 확대 기회 제공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공간들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급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탈피하여 콘텐츠산업의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현재는 하나의 문화공간을 제공했다는 인식이 강하고, 내부를 역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해 보임으로 공공 문화공간을 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함.

■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스토리텔링교육 및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

- 지역민들이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채록하고 기록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이야기꾼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마을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하게 함.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콘텐츠 창작 및 제작 인력 간의 커뮤니티 조성 및 활발한 교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콘텐츠 창작 및 제작과 관련하여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주어야 함.
- 콘텐츠산업 전문인력과 이 분야를 희망하는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함.

⑫ 예술가 복지 지원제도 개선

■ 예술가 창작 용자 지원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함.

-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용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용자금의 상환 방법 등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예비 예술가 복지 지원 차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청년 작가를 위한 창작 지원제도는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자신들의 분야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도록 창작 지원제도가 있어야 함.

⑬ 문화공간 운영 방법 개선

■ 제주지역의 공공 문화공간은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평일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저녁이 있는 삶, 일과 휴식의 균형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도와 최저임금제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하였음.

■ 한편 제주지역에는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민들이 문화의 생활화가 가능하도록 문화공간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⑭ 공공 및 민간 공연장 이용 확대 방안 마련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확대를 통해 연극인들의 창작 활동 기회가 많아져야 함.

- 연극 분야는 공연장 이용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주단체 지정을 하겠다는 공공 공연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간 예술단체는 활동 기회가 줄어들고 창작 인구도 감소할 수 있음.

■ 연극 분야는 공연장 및 연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무대에 작품을 올릴 때도 최종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연극인들이 연습량이 많아도 무대에서 공연할 수 없으면 무의미하므로, 실전 경험이 부족하면 연극인들의 기량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연장과 무대 전문인력, 배우들의 호흡이 중요한데 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무대공연인 경우 가능하면 본무대에서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4-2. 도민 원탁회의 결과

4-2-1. 개 요

- 행사명 : 제주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원탁회의
- 일 시 : 2019. 11. 1(금) 14:00~17:00
- 장 소 : 오드리 인 제주 호텔(제주시 소재)
- 참여자 : 제주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제주 도민 50명

4-2-2. 주요 내용

① 예술가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및 창작공간 지원

-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이 예술 활동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소규모 공연 시 장소 대관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규모 창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모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함.
- 문화공간 운영 및 예술가 활동 지원의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강사비를 현실화하여야 하고, 문화공간별, 강좌별 강사비의 기준선이 마련되어야 함. 즉 행정기관에서 최저 기준선을 정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예술 분야 예산지원 시 정산시스템 운영의 간소화가 필요함.
- 마을단위로 유희공간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 예술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함.
 - 예술가의 작업실 또는 소규모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교류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
 - 예술가들이 창작과 발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 시스템이 필요함.

②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고령화시대에 맞게 노년층 대상 생활예술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어야 함.
 - 어르신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 이용이 편리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함.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함.

- 유아는 물론 중장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문화예술 소외 계층이 줄어들도록 문화예술 향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찾아가는 문화예술의 일종으로 '버스투어데이' 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읍·면지역 주민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대상 문화투어 버스 운영 및 미술관 투어버스를 운영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해야 함.

③ 문화 매개자 양성 및 활동 공간 지원

■ 문화 매개자의 기획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기획력이 낮아질 수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에 어려움이 있음.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 매개자를 양성해야 하고,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문화 매개자 양성 교육과 인력풀 제도 도입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문화 매개자가 양성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문화 매개자가 전문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즉 매개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문화 매개자들의 인건비가 현실화되어야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문화 매개자들이 전문성을 띠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화 매개자의 활동 기회도 부족하고, 인건비 기준도 일정하지 않아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④ 문화공간 이용의 다변화 필요

■ 장르별 문화공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공간, 비용) 규모에 형평성이 있어야 함.

- 현재 장르별(공연, 연극, 전시, 발표회 등)로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음.

■ 지역의 문화공간과 유희공간을 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술의 일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점검이 필요함.

- 창작자들이 폐가나 빈집을 창작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과 창작자를 연결해주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민들이 지역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문화공간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

■ 소규모 공동 창작활동 및 네트워크 공간이 필요함.

- 마을공방 등 소규모의 작업공간이 필요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비전문 예술가들이 연습과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일종의 예술공원을 조성하여 예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필요

■ 제주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보존할 수 있어야 하고, 제주 자원이 예술 창작에 활용되거나 문화콘텐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제주 문화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자원들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마을 자원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민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해야 함.

- 마을단위, 지역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축제와 행사들이 전문 기획자의 책임 하에 원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가 가능해야 함.

■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 제주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제주의 전통놀이나 생활민속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제주 도민들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문화예술 행사와 프로그램 중복 현상이 빈번하므로,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의 다양화가 필요함.

- 문화예술 행사 일정이 특정 달에 몰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공공성을 띤 행사인 경우 일정 조율 등이 필요함.
- 월별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공연, 축제 등의 행사 기간을 알 수 있는 예술 달력이 필요함.

⑥ 지역 예술가 대상 적극적인 홍보 지원 필요

■ 제주지역의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예술가들은 개개인이 창작과 발표, 홍보 등을 전담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많은 편이고, 공연 개최관련 홍보가 부족해서 도민들은 향유 기회를 놓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접근성을 보완해야 함.

- 마을 방송을 활용하여 마을(사무장, 이장)에서 문화 행사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함.
- 공공 문화공간이 대부분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읍·면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불편하므로, 행사 개최 일정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고려해 주어야 함.
- 문화바우처 대상자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함.

■ 공공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문화지도 제작 보급은 물론 시설 문화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⑦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문화 정보의 공공성 확보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 제주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복원하는 기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마을 자원 기록화를 위해 지역민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가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제주 문화자원 및 그린콘텐츠를 이용한 문화관광으로 전환이 필요함.

- 올레, 해녀, 꽃자왈 등 제주의 문화자원을 그린콘텐츠로 활용하여 문화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야 함.

■ 문화콘텐츠 사업에 영세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문화콘텐츠 사업 발주 시 도내 영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50% 이상 컨소시엄 구성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
- 소규모의 마을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영세 기획사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V.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방안

1. 추진 방향

1-1. 문화다양성 환경 조성

- 제주사회는 2000년대 들어와서 외부의 투자자본이 증가하였고,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문화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의 섬을 활성화하려면 제주 고유문화와 외래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 결국 제주라는 공동체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자신들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은 『문화비전2030』의 3대 가치에 속하며, 주요 의제로 선정될 정도로 사회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 분야임. 이에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1-2.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조성

- 사람들은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 풍요로움에 두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음. 이에 개인이나 사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사람 중심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음.
- 한편 정부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함으로써 지역 문화진흥과 문화분권이 가능하도록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도시는 도민들이 고유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창작자와 향유자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도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문화도시사업을 문화예술 섬 전략의 기본 바탕으로 설정함으로써 읍·면·동 지역에서부터 출발한 문화예술 섬 정책이 제주지역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²¹⁾되어 있으므로(「제주특별법」 제257조의3, 2019. 11. 19. 국회 본회의 통과) 도지사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전략과제 선정 방법

■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전문가와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함.

- 제주연구원 주최 : 전문가 회의 6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주최 : 토론회 3회, 전문가 회의 3회, 문화정책 워킹그룹²²⁾ 운영

■ 또한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2016)의 핵심과제와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 등을 참조하여 전략과제에 반영함.

■ 전략과제는 민선 6기 문화정책 추진결과, 정부의 문화비전2030 주요 의제,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조합하여 선정함.

■ 최종 선정된 전략과제는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제주 문화정체성 확립, 문화자원 융합 제주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제주형 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문화가 있는 삶, 제주형 모델 개발 등 4개임.

21) 「제주특별법」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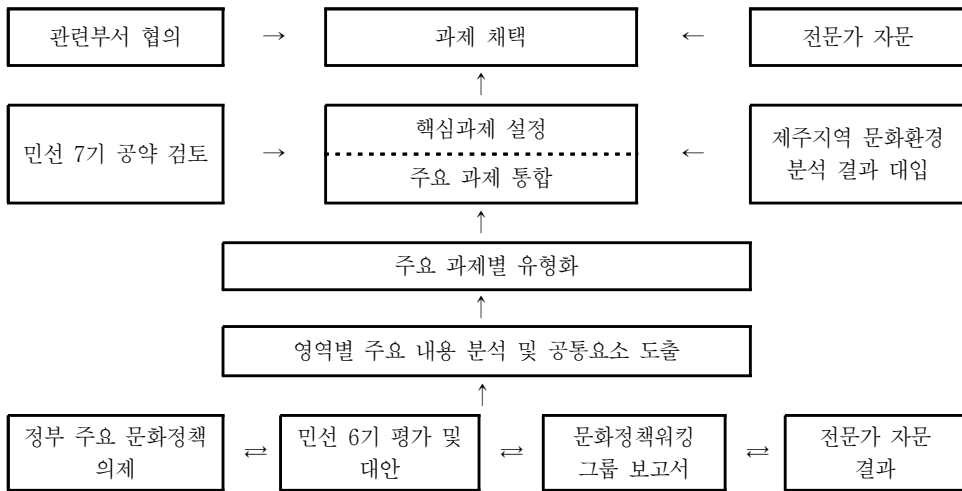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2) 문화정책 워킹그룹은 2019년 2월 25일 구성되어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으며, 문화예술(6명), 문화산업(5명), 제주 역사·문화유산(4명) 등 3개 분과 15명이 참여함.

- 제주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는 정책은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과제 선정에 역점을 두었음.

－ 제안된 주제를 내용별로 유형화하고, 전략과제와 핵심과제를 선정함.

<그림 5-1> 전략과제 도출 모형



- 전략과제 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1> 전략과제 선정 절차 및 주요 내용

민선 6기 평가 후 대안	정부의 문화비전2030 주요 의제	전문가 자문	전략과제(안)
제주 문화정체성 확립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제주어 웹사이트 개발 ·제주 민속 아카이브 구축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제주 문화 정체성 확립
제주 특화형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문화예술 종합 플랫폼 ·제주형 콘텐츠 유통 통합 플랫폼 구축	문화자원 융합 제 주형 문화콘텐츠산 업 육성
제주 문화예술생태계 강화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 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현장성을 겸비한 인력 양성 ·예술가 복지 지원제도의 현실화	제주형 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	·지역 문화분권 실현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문화가 있는 삶, 제주형 모델 개발

- 전략과제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은 민선 7기의 공약사항과 문화정책 워킹그룹의 제안 내용, 전문가 자문 결과 중에서 전략과 합치되는 내용을 추출함.
- 따라서 민선 7기 문화예술의 섬 추진을 위한 과제는 전략과제 4개 분야에 핵심과제 13개를 선정함.

<표 5-2>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관련 핵심과제

전략	핵심과제	추진 기간
1.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제주 문화정체성 확립	1-1. 바다에서 한라산까지, 제주 자원 활용 기반 구축	2020~2025
	1-2. 인문학 진흥 지원 제도 강화	2020~2025
	1-3. 제주 문화다양성의 포용과 확산	2020~2025
	1-4. 미래유산 제도 정비 및 활용	2020~2022
2. 문화자원 융합 제주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2-1. 문화콘텐츠 융합 데이터 뱅크 구축	2020~2023
	2-2.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2020~2023
	2-3.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 육성	2020~2023
3. 제주형 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3-1. 예술창작 환경 제도 개선	2020~2022
	3-2. 튼튼한 예술생태계 조성	2020~2022
	3-3. 문화거버넌스 구축	2020~2022
4. 문화가 있는 삶, 제주형 모델 개발	4-1. 생활SOC 확대 및 유희공간의 문화거점화	2020~2023
	4-2. 문화공간 벨트 구축	2020~2022
	4-3.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태계 구축	2020~2022

3. 전략과제 주요 내용

3-1.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제주 문화정체성 확립

- 전략과제 1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 한라산까지 제주 자원 활용 기반 구축, 인문학 진흥 지원 제도 강화, 제주 문화다양성의 포용과 확산, 미래유산 제도 정비 및 활용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함.
- 바다에서 한라산까지, 제주 자원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분야를 포함하여 통합자원 관리가 필요함. 자원 조사 방법과 관리 방법도 표준매뉴얼에 따라 (자원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음) 분류하는 한편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함. 또한 조사·기록화된 자원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인문학 진흥 지원 제도 강화는 인문학 관련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인문학 진흥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인문정신 문화 진흥에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제주 문화다양성의 포용과 확산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일회성 행사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함.
- 제주지역에는 지정 및 등록 문화재가 있는데 미래에 소중한 자원이 될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산들의 멸실과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미래유산 보호제도를 정비해야 함.

3-1-1. 바다에서 한라산까지, 제주 자원 활용 기반 구축

① 필요성

- 제주 자원 분야별로 기초조사는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음. 이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에 조사된 자원에 대해서는 단일체제로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원 보존 및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제주 자원 기초조사 현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분야 대상 자원 총 조사를 시행하여 제주 자원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제주 자원 수집과 분류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계 방안이 필요함.

-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 증가에 따라 제주어 보존과 활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제주어 사용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② 사업내용

- 제주 자원 조사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기존 조사 자원과 신규 조사 자원 간 분류체계를 고려한 관리·운영 시스템 개발.
- 해양자원, 육상자원, 인문자원,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 해양생태계 보존과 15번 육상생태계 보호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주 자원 조사 및 보존 방안 추진.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간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임.

·SDGs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SDGs 목표 15. 지속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하고,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한다.

-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제정(2019. 10. 31.)되어, 관련 정책 추진에 적용 가능함.
- 국내외인의 제주 이주사, 제주 도민의 국내외 이민사 등 디아스포라 연구 토대 마련.
 - 제주 도민의 국내 이주와 국외 이주(일본, 미국 등) 역사와 정착 등 제주이민사를 정립함.
 - 제주로 이주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기초연구 토대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주 정책 방향에 적용함.
- 제주 민속문화 전반을 조사하여 자료 활용 기회 확대.
 - 의식주, 생업활동, 세시풍속, 일생의례, 민간신앙, 마을기록물 등 전통지식과 생활문화 분야 실태를 조사함.
- 제주어사전류를 기반으로 웹사전을 구축하고 향후 『(가칭) 제주어대사전』을 편찬하여 제주어 웹서비스 확대 지원.
 - 『개정정보 제주어 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말큰사전』(송상조, 2007) 등 활용 가능함.

③ 추진기간 : 2020~2025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관련기관

3-1-2. 인문학 진흥 지원 제도 강화

① 필요성

- 제주지역의 인문자원인 역사, 언어, 전통문화 등은 문화콘텐츠와 예술 창작의 주요소이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고, 도민들은 인문학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인문학은 제주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이므로, 지역과 마을단위 공동체 정신 유지와 인문정신문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인문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하므로, 복원과 보존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구축이 필요함.
- 2000년대 이후 인문자원 조사 및 대중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인문학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함.

②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문학 진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자 지원 확대를 통해 인문학 후속세대 양성 지원 사업 추진.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인문학 교육 운영의 체계화, 인문학의 대중화 기반 조성, 국내외인 간 공유 가능한 인문자원 플랫폼 운영 방안 마련.
- 인문학과 문화예술 융합 사업을 통해 문화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인문자원 공유 및 개발 지원.

③ 추진기간 : 2020~2025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역 대학

3-1-3. 제주 문화다양성의 포용과 확산

①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10년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였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2017).

- 현재 제주 거주 국내외 이주민 수는 10만 명을 넘었으므로, 제주도정의 전반적인 정책에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도민과 제주 이주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지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이주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② 사업내용

- 제주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문화다양성 확산 종합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었으나 현재 제주지역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제10조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ODA사업 추진.
 - 문화예술교육은 ‘연구개발 프로세스 구축 ⇒ 문화다양성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 문화다양성 예술교육 정착 ⇒ 보급 확산’의 절차에 따라 진행함.
 - 문화예술교육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예술강사와 기획자를 수원국에 파견하여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 예술 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임.
 - 문화 ODA사업 추진 시 제주 자원 활용 및 문화다양성 증진 방법을 수원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문화다양성 확산 교육과 동시에 제주의 창조성과 포용성을 알리는 문화다양성 국제포럼 개최 등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제시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지향 정책 추진.
 - SDGs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문화다양성 Arts Festival 개최.
 - 다양한 문화 페스티벌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전통문화, 생활문화, 언어 등)를 이해하고 다양한 계층(장애인, 난민, 이주민, 외국인 등)이 서로의 다름을 인지할 수 있는 공유의 기회를 제공함.

③ 추진기간 : 2020~2025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

3-1-4. 미래유산 제도 정비 및 활용

① 필요성

- 현대 사회는 문화가 자본이 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지역의 경쟁력은 사람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유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음.
- 사회와 도시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생성된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평가받기도 전에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위기에 놓여 있음.
- 지역의 고유성을 담아낸 특화된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과거의 유산뿐만 아니라 현재의 유산도 중요함. 특히 근·현대시기에 만들어진 유산 가운데 미래까지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발굴·보존할 필요가 있음.
- 비지정 문화재로서 지역민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감성과 집단 기억 대상 중에 소멸 위험성이 높은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②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보호 조례』(2013년 제정)를 개정하여 활용 방안 마련.
 -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 미래유산의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제주 도민 중심으로 보존과 활용 기회를 제공함.
 - 미래유산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황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함.
- 제주미래유산 선정 및 활용계획 수립.
 - 미래유산 보존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 미래유산 대상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래유산 선정 및 발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함.
- (가칭)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활용과 보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상향식 유산 보존 방법 기회를 제공함.

③ 추진기간 : 2020~2022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2. 문화자원 융합 제주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전략과제 2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융합 데이터 뱅크 구축,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 육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함.
- 문화콘텐츠 융합 데이터 뱅크 구축 사업은 인문학 분야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등 모든 영역에서 기록화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됨. 이에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통합형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뜻함.
- 제주지역의 경우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원천 자료와 주제는 많으나 이를 상품화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단계까지 유통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편임. 이에 창작물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유통환경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 육성사업은 일회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사업을 의미함. 특히 예술 영역과 기술 영역을 접목하여 창의적인 작품 창작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스토리 개발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클럽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분야 인력 양성의 기회로 삼아야 함.

3-2-1. 문화콘텐츠 융합 데이터 뱅크 구축

① 필요성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역 공공기관들이 독립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 및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관련 자료,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예술 창작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상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합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아카이브(Archives)는 자료의 장기 보존과 지속적인 가치 창출의 핵심 기능이 강함. 이에 지역 문화진흥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빙'통합 사업을 통해 구축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활용 면에서 미래세대에게 창작 영감과 새로운 사업 제공 기회를 확대해야 함.

② 사업내용

■ 제주 문화유산-예술-콘텐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제주 민속 아카이브, 제주 문화유산 및 예술 콘텐츠, 문화산업 등을 연계하여 기록통합형 플랫폼을 구축함.
- 제주 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 ‘제주인놀다’의 재구축 및 활성화, 제주 영상기록화사업을 추진함.
- 문화콘텐츠 상품 통합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함.

■ 제주 문화유산-예술-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통합구축위원회 조직.

- ‘제주 문화예술 아카이브추진단’을 구성함. 또한 세부 조직으로 세계인이 접속할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포털 구축을 위한 ‘포털콘텐츠 디자인위원회’, 자료수집 및 분류를 위한 ‘통합자료수집위원회’(문화예술창작 및 문화산업 원재료인 문화유산의 체계적 수집) 등을 운영함.

■ 제주 문화 라키비움 구축 운영.

- 단기적으로는 수집된 자료를 알리는 전시회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 문화 정보를 한자리에 보관, 전시, 교육, 확산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체험 공간을 조성함.
- 라키비움(라이브러리+아카이브+뮤지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한 문화복합 공간

③ 추진기간 : 2020~2023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3-2-2.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① 필요성

- 2018년 국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2020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콘텐츠 유통과 영상산업이 발전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
- TV 및 레거시미디어는 콘텐츠 유통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콘텐츠 소비패턴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
-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 또는 PC로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소비시대로 진입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콘텐츠(영상, 애니메이션 등)가 한 해 20여개 이상 제작되고 있음. 한편 창작 지원에 따른 창작권 생산까지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창작권을 소비시장에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소규모 문화콘텐츠기업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이 없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이 필요함.

② 사업내용

- 제주 문화콘텐츠 통합 마케팅 시스템 구축.
 - 온라인 플랫폼과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도 1인 창작자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테나숍에 대한 지원과 디자인 지원 시스템을 도입함.
- 제주형 OTT(Over The Top)플랫폼 구축.
 - 제주지역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 및 유통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OTT :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제주 디지털 미디어 페스티벌 및 컨퍼런스 개최.
 - 제주지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창작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페스티벌, 디지털 미디어 컨퍼런스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관심을 콘텐츠 창작으로 연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함.

③ 추진기간 : 2020~2023

-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제주테크노파크

3-2-3.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 육성

① 필요성

- 문화예술업계와 콘텐츠제작업체 간 협업모델 구축을 통하여 소재 발굴에서부터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 함.
-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지닌 문화콘텐츠 기반 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을 발굴해야 함.

-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원형이나 유형·무형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을 육성해야 함.
- 단발성 위주의 스토리텔링 공모와 소규모 사업지원으로 관련업계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기업체 중심의 지원과 더불어 도민 중심의 지역 스토리텔링클럽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콘텐츠 원소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1인 미디어의 창작 배경으로 제주와 연관된 소재를 개발하는데 1차 소재에 대한 공동연구와 장르의 융합 추진이 필요함.

② 사업내용

-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 지역의 콘텐츠관련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소규모 기업과 스토리텔링클럽, 산업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들이 협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 스토리텔링클럽이 지속가능하도록 협업 시스템 구축.
 - 스토리텔링클럽의 지역 문화원형 재해석과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
- 문화예술단체와 콘텐츠 제작 기업 간 컨소시엄 구축 지원 서비스 강화.
 -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역사·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원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기술과 융합하여 개발된 신규콘텐츠는 각 포맷에 맞춰 상영 가능하도록 지원함.
 - 공연과 홀로그램을 결합한 제주 신화 실감형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스토리텔링클럽 운영 제도 도입.
 - 지역 소재 문화공간 및 기타 공익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스토리텔링클럽 운영사업 공모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함.
 - 스토리텔링클럽 공모를 통해서 클럽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도민이 직접 스토리 발굴 과정에 참여하여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스토리텔링클럽에서 창작된 스토리는 기업과 연계하여 콘텐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

③ 추진기간 : 2020~2023

-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제주테크노파크

3-3. 제주형 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 전략과제 3을 추진하는데 예술창작 환경 제도 개선, 튼튼한 예술생태계 조성, 문화거버넌스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함.
- 예술창작 환경은 창작 활동 주체자인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또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 건립이 필요함.
- 튼튼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형 축제(음악제, 미술제 등)에 집중 지원하고, 맞춤형 예술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함. 또한 문화공간, 문화 매개자,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어야 함.
-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행사 수는 많은데 도민들의 편중된 참여 형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예술가들이 직접 소통하고 정책 제안이 가능한 거버넌스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3-3-1. 예술창작 환경 제도 개선

① 필요성

- 공공 예술사업의 경우 예술가의 창의성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보장이 미흡함. 이에 행정기관이 공공 예술사업을 발주할 때는 사업시행자(사업체)와 작가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하청 구조를 개선해야 함.
- 예술계의 현실에 맞게 문화예술 창작 용자 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용자금의 상환 기간 연장 등 예술가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도내 공연예술 단체가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극장 규모의 공연예술 공연장 조성이 필요함.

② 사업내용

- 국내외 레지던스 지원 사업 확대 및 예술품 유통 통합 시스템 운영.
 - 제주지역 작가의 국내외 레지던스 참여 지원제도를 확대함.
 - 제주지역 작가의 작품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마케팅 및 판매 대행 시스템을 운영함.

■ 대학생 등 청년 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확대.

- 청년 예술가 대상 창작 활동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지역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 제도를 도입함.

■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제도 보완 및 세부 지침 마련.

- 예술가의 창작지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즉 사업 신청 대상자의 경우 지역 체류기간,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 소재의 고유성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함.
- 1년 단위 단기 지원사업 외에 작품의 특성에 따라서 연속사업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유연해야 함.

■ 기초예술 분야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제주 예술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 전문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예술 분야 지원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제도를 보완함.

■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술인 창작 융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융자금의 상환시기, 융자금액 등 예술가들이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 활동 공간 지원.

- 예술 장르 간 소통과 융합이 가능한 융복합적 창작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융합예술 활동과 소규모 예술축제가 가능하도록 함.

■ 중극장 규모의 전문 공연장 건립 및 공연예술가의 역량 강화 기회 확대.

- 다양한 공연예술(뮤지컬, 연극, 음악, 무용 등)은 물론 여러 장르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객석을 갖춘 중극장 규모의 전문 공연장을 건립함.
- 공연 활동 인력의 욕구에 맞는 중극장 규모의 극장을 조성함으로써 도내 공연예술 분야 예술가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해 주고, 도민에게는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공연장 무대 전문인력과 공연 예술가들의 협력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제주지역의 공연예술 역량을 강화해야 함.

③ 추진기간 : 2020~2022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공공 공연장, 제주지역 대학

3-3-2. 튼튼한 예술생태계 조성

① 필요성

-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화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예술가는 단기간에 양성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성 예술가 또는 문화 매개자 교육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훈련과 현장 경험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 또한 행정시의 특성을 살린 문화도시 추진을 지원하고 중복 투자 회피, 공통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읍·면지역 생활SOC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정착을 위해 민·관·학의 상설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 추진사업 개발, 인력풀 공동 활용 등 자원의 공동 관리가 필요함.
- 제주대표 브랜드 선정은 도민과 예술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함.
- 예술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예술 경험 기회 확대가 중요하므로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② 사업내용

- 예술생태계의 실태조사 정례화 제도 보완.
 - 문화예술 공간 실태조사, 문화예술인(단체) 실태조사 등 예술생태계의 다양한 변화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예술생태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 매개자, 문화공간, 문화예술 인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함.
- 현장 맞춤형 예술 매개자 교육 시스템 운영 및 현장 활동 기회 제공.
 - 현장 맞춤형 예술 매개자 교육(전문가)과 예술 동호인들이 실질적인 훈련과정을 거쳐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
 - 제주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함.
 - 제주대학교는 2019년 11월 경영대학원에 문화예술경영학과 신설이 결정되었고, 2020년 1학기 대상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임.
 - 문화 매개자 교육은 기초와 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제도를 강화함.
- 기존의 공연을 제주대표 브랜드로 육성 계획 수립.
 - 제주대표 브랜드 공연은 신규 공연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의 예술제를 강화하고 도민 공감형 축제를 발굴함.

- 제주국제관악제 역량 강화, 제주비엔날레 및 제주미술제 확대 운영이 가능함.
- 제주비엔날레와 다양한 미술제를 통합하여 제주예술섬트리엔날레 개최가 가능함.

③ 추진기간 : 2020~2025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 지역 대학

3-3-3. 문화거버넌스 구축

① 필요성

-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사업은 주로 행정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연구원 지역 균형발전지원센터(문화중개소),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도시센터 등 공공기관과 주민협의 조직인 마을만들기협의회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복 사업이 발생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낮게 평가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 수준을 측정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제주문화지표조사 등 각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양적인 행사는 많은데 제주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격차가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세대·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 관련 기구 간 문화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함.

② 사업내용

- 제주 문화정책 관계자 간 거버넌스포럼 운영의 정례화
 - (가칭) 제주문화포럼 개최를 정례화하여 제주 문화정책 관계기관 간, 제주 문화정책 관계기관과 예술가 간에 정책을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
- 다양한 장르별 예술가 간의 포럼 운영 지원
 - 예술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개 공론의 장을 마련함.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총괄 기획자 및 전담 조직 신설
 - 제주 문화예술의 섬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 기획자를 선정하거나 전담조직

(최소 담당계 정도)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문화공간에 따라 문화행정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정책 추진에 책임성과 지속성을 부여해야 함.

③ 추진기간 : 2020~2022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시·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3-4. 문화가 있는 삶, 제주형 모델 개발

- 전략과제 4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SOC 확대 및 유희공간의 문화거점화, 문화공간 벨트 구축(뮤지엄 중심),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태계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함.
- 생활SOC 확대 및 유희공간의 문화거점화 사업은 유희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역 내 유희공간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의 문화거점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문화공간 벨트 구축(뮤지엄)사업은 공공 뮤지엄 통합 마케팅 방법을 도입하여 지역단위 플랫폼을 연결함으로써 마을단위별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함.
- 지역민 중심의 문화생태계 구축은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가, 주민, 문화 매개자, 문화공간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이 필요함.

3-4-1. 생활SOC 확대 및 유희공간의 문화거점화

①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2018. 제정)에 근거하여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생활문화 정책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밀착형 유희공간을 활용한 생활SOC 사업 확대(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및 기능의 재편을 위해서 지역 내 유희공간과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단순히 공간에 대한 계량적 조사 차원을 넘어 창작매개공간 유형과 이러한 문화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실태, 유희공간의 창작매개공간으로 활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함.

- 문화매개공간은 민간의 독립서점, 갤러리카페, 북카페, 공연 및 전시공간, 공공기관 위탁 공간 등이 해당됨.

② 사업내용

■ 유희공간 운영 실태조사 및 문화공간 이용 방안 마련.

- 농협창고나 폐시설 등 공공기관 소유의 유희공간을 전시 또는 공연(연습)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일정기간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함.
- 문화공간과 예술가를 연결하여 예술가들이 기획·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창작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지역 내 소규모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

■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지원 확대.

- 마을에 있는 각종 창고(새마을창고, 농협창고 등) 등 마을 공동의 자산을 마을 거주 예술가들과 지역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사업을 펼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재활용함.

③ 추진기간 : 2020~2024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리사무소

3-4-2. 문화공간 벨트 구축

① 필요성

- 공공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공간 운영 시 공급자의 관점을 탈피하여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인력 배치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제주지역에 산재한 뮤지엄(박물관/미술관)을 통합·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관람객을 유치하는 실정임. 이에 공공 박물관 및 미술관 자원을 연결하여 제주의 문화를 입체적으로 홍보해야 함.

② 사업내용

■ 지역별 뮤지엄을 연계하여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가와 함께 동네 문화환경을 꾸밈으로써 지역 내 공공 문화공간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
- 지역의 문화공간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아트투어버스를 운영함.

■ 뮤지엄을 벨트화하여 통합문화상품 개발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뮤지엄 대상 통합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문화공간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스탬프 프로그램 운영 : 참여를 희망하는 뮤지엄은 입장료 인하, 관람객은 일정한 수요 이상의 미술관 방문 시(스탬프 날인) 기념품을 제공함.
- 통합 행사 운영: 제주비엔날레, 아트페스티벌 등 뮤지엄 행사기간 중 공동기획 특별전시회를 운영함.
- 공공 뮤지엄 연간회원권 제도 도입: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내면 도내 공공미술관(7개소)의 기획전시 및 특별전을 무제한 관람할 수 있도록 회원제도를 도입함.
-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과 현대미술관 등을 중심으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의 문화공간 벨트화를 추진함.

■ 제주 아트맵 제작 및 보급.

- 뮤지엄 이외에 제주지역의 각종 문화공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문화공간의 위치와 주요 전시내용, 권역별·방문객 취향별 맞춤 투어코스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제주 문화예술 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함.

③ 추진기간 : 2020~2022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 미술관(전시관)·박물관

4-4-3.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태계 구축

① 필요성

■ 문화예술의 섬 제주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문화생태계 조성이 중요함. 문화도시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 등 생활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함.

■ 읍·면·동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생활공간에서 문화 향유와 활동 참여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 특히 마을에 따라 개발 위기에 놓이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스토리텔링이나 마을기록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을 일회성 조사보고서로 마무리 하지 말고,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문화도시사업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가운데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즉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조정과 신규사업 도입 여부 등을 마을단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마을 자체적으로 문화공간을 건립하거나 유치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해서 특색이 없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시설물 도입을 제한해야 함. 또한 복원이 필요한 유형유산인 경우 고증절차가 가능하도록 마을별로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② 사업내용

- 지역밀착형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 주민-예술 매개인력-문화공간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내 인적 자원(지역 예술가 및 문화 매개자)과 연대 가능하도록 생활문화 플랫폼을 구축함.

- 마을문화환경검토위원회 구성.

- 마을에 도입되는 신규 사업 또는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마을의 정체성 유지는 물론 마을 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함.
- 마을의 풍속, 문화재, 민속 등 생활문화사의 기록화 과정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읍·면·동 민속보존회 실태 조사 및 역할 재조정 추진.

- 마을단위 민속보존회는 주요 행사 때마다 동원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함.
- 지금과 같이 탐라문화제 등 특정 시기에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마을에 적합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민속조사가 지속되어야 함. 또한 공연 창작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출, 대본 작성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양성이 필요함.

- 지역 문화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 지역 유희공간의 문화거점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문화거점들을 조직화하여 마을단위에서 생성된 긍정적인 사례가 확산되도록 함.

③ 추진기간 : 2020~2022

- ④ 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문순덕(20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의 특성화 전략과 과제」, 『JDI 정책이슈브리프』, 208호,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 외(2016),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 외(2017), 『제주문화지표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 문순덕(201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방향」, 『JRI 정책이슈브리프』, 293호, 제주연구원.
- 문순덕(2019), 「제주 예술 10년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지 제3권』, 제주특별자치도.
- 문순덕·홍선영(2019), 『제주지역 공공 공연장 및 예술단 전문인력 확보 방안』, 제주연구원.
- 문순덕(2019),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문학 진흥 지원제도 개선 방안」, 『JRI 정책이슈브리프』, 314호, 제주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진흥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8),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 문화체육관광부(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2019~2023)」.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3권: 일반회계 7100 프로그램, 지특회계·균특회계』.
- 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 새예술정책수립TF·문화체육관광부(2018),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새 예술정책(2018~2022)」.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2019), 『문화정책 위킹그룹 보고서 최종안』.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2017), 「민선 6기 3년 도정 성과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2018), 「민선 6기 주요 정책평가 및 핵심과제」.
- 제주특별자치도(2018),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2019.), 「2019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2014~2018),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
- 조현성(2019), 「포용사회를 위한 일상의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세미나 자료집.
- 조현성(2019),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정책」, 『웹진문화관광』 6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이트(<https://www.council.jeju.kr/committee/O05/index.do>)

Abstract

Strategy to Promote Jeju as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Moon Soon Deok & Kim Seak Yun & Cho Hyeon Seong

Keywords: Island of culture and art, Cultural policy, Culture Vision 2030, Cultural and art ecosystem, local culture decentralization, Cultural diversity

Weon Hee-ryong,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oclaimed “Establishment of Jeju as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as the objective of his administration and has carried out the related policies. The objective has remained for the current administration since his reele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y for Establishing Jeju as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2016)” to examine the project outcomes and establishes the strategy for promoting Jeju as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to present the core agenda for the current Province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e “Strategy for Establishing Jeju as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is to establish the environment for cultural diversit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inheriting the direction for cultural and art polici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s for the implementation direction, four strategic programs and 13 core programs were selected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expert groups and residents with the aim to create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by establishing the cultural diversity environment and the cultural city in Jeju Island.

The strategic programs include establishing Jeju's cultural identity based on uniqueness and diversity (4 core programs), fostering Jeju-specific cultural contents industry that converges cultural resources (3 core programs), strengthening Jeju-specific foundation for art ecosystem (3 core programs), and the development of Jeju model for cultural life (3 core programs). These programs are designed to be implemented for 5 years from 2020 to 2025.

For Jeju Island to be an island of culture and art, all residents of Jeju Island (regardless of age, gender, or region) must be able to express themselves with culture (cultural identity), whether they are in urban or rural areas, and enjoy life with culture.

연구진

연구책임	문 순 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김 석 윤	제주대학교 강사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현안연구 2019-08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

발행인 || 김 동 전

발행일 || 2019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63147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9-0500 FAX. (064)751-2168

홈페이지: www.jr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714-4 936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